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부산대표 향토기업 파크랜드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PARKLAND



마음까지 가볍다
그래서 Air Suit

안감 및 내부시양을 최소화하고
청량한 원단을 사용하여
가볍고 시원하며 쾌적한 수트-파크랜드
아이스 플러스의 대표상품 Air Suit가
당신의 하루를 쿨하게 만듭니다.

Ice Plus+

파크랜드 아이스플러스는 냉감 기능성 소재를 사용하여
항상 쾌적한 착용감을 주는 냉감&윌링 상품군입니다.

cool touch, light weight, air fresh, keep cool

PARKLAND CABRINI J. HASS PRELIN PL SPORTS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옷의 가치, (주)파크랜드가 생각하는 진정한 패션입니다

부산체육 2016 03+04 통권 1호

2016 부산체육 슬로건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과 체육중흥을 위하여!



부산체육

2016 03+04 통권 1호
www.sports.busan.kr



부산광역시체육회

CONTENTS



06



13



22

인사말

- 04 **Leader**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

Hot Issue

- 06 **Cover Story**
부산시체육회 통합 출범
전국 동계체전 해단식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강사 교육
아시아주르카네스포츠포럼 개소식 및 회장 취임식

People & People

- 14 **스페셜 인터뷰**
김기천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
- 18 **스페셜 칼럼**
손준구 부산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20 **데스크 칼럼**
이성재 기획홍보실장
- 22 **Column**
동계체전 스키알파인 MVP 강영서 선수

News

- 26 **부산체육 소식**
부산시민자전거대회
체육 꿈나무 선수 공식 후원병원 협약식
- 30 **체육정책 브리핑**
문화체육관광부 / 교육부
- 34 **지역행사**
구·군 체육회 소식
- 40 **종목행사**
회원 종목단체 소식

- 44 **체육센터 소식**
부산국민체육센터
북구국민체육센터

Tips

- 46 부산체육시설 안내

Festival

- 50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프로스포츠 소식

- 52 2016 프로축구 개막
- 54 2016 프로야구 개막

Surprise

- 56 **해외스포츠 안내**
미식축구, 미국의 자유로움을 담은 스포츠

Life

- 58 **쉽게 배우는**
골프스윙의 기초동작
- 60 **건강 소식**
근력운동, 왜 우리 몸에 필요할까?

Notice

- 62 부산광역시체육회 교실 프로그램
- 63 부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 64 북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하나 된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병수
부산광역시체육회장
부산광역시장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 구심점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부산시통합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부산체육 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시기에, 체육에 대한 열정으로 뜻을 모아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인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회원단체 회장님과 이사를 비롯한 통합에 열정을 쏟아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장으로서 많은 노고를 기울여주신 박희재 생활체육위원장님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부산체육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으로서 더욱 강해지고 힘찬 도약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전문체육선수들과 시민들이 체육의 혜택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 각 분야의 계획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힘을 모으면 우리 체육계의 역량이 지금보다 더 뛰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시켜 전문체육의 발전을 이끌어 가며, 전문체육인들도 생활체육의 체계를 더욱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 체계로 강화 될 것입니다.

부산시체육회는 지난 1963년 설립 이후 우수선수 육성을 통해 부산 전문체육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1990년 설립된 부산시생활체육회는 1인 1스포츠 갖기 운동을 통해 360만 시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은 2002 FIFA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와 부산아시아게임 등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국제 스포츠도시입니다. 또한 세계 유명 건각(健脚)들이 함께 하는 국제체육대회 및 스포츠와 축제 등이 연중 개최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각종 체육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에서 힘차고 역동적인 삶을 시작합니다.

통합 준비를 하면서 그간 알게 모르게 불합리한 점들이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일심해야 할 것이고, 좋은 제도나 문화가 있다면 서로 공유하고 확대시켜서 더 나은 체육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사람과 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활력과 행복이 넘치는 건강도시 부산을 만들어 가는 구심점으로서 더욱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부산시통합체육회 출범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부산체육 발전의 역사를 써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2016년 터닝포인트!
부산시체육회
통합 출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지난해부터 뜨거운 화두였다. 25년 동안 '체육'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두 개의 줄기로 양 단체가 활약해왔다. 그동안 양 단체 통합 추진의 흐름을 보면 쉬운 일이 아니었음에 틀림 없다. 이제는 스포츠 선진국에서 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한국 체육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난 2월 29일(월) 오후 2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통합체육회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총회에는 서병수 부산광역시장, 박희재 부산시생활체육회장을 비롯하여 종목회원 단체 대의원 102명 중 75명이 참석하였다.

통합체육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어 창립총회 의장을 맡은 서병수 시장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분리된 이후 25년 만에 하나로 통합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전국적인 사안에 그동안 두 단체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전문체육의 저변이 약화되고 정책과 재정운영의 효율이 떨어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통합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일입니다."라며 "어려운 모두 그 취지를 충분히 양지하셔서 통합체육회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통합을 계기로 더 건강하고 유연한 조직을 만들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서로 밀어주고 이끌어 줄 수 있는 상호 발전체계를 갖추는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통합은 비효율성의 문제를 해소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 일입니다.

이날 회의는 보고사항 1건, 심의 사항 2건이 상정되었다. 먼저 통합추진 경과에 대한 보고에서는 체육단체 이원화에 따른 정책·재정 등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5년 3월 27일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1년 안에 양대 체육회를 통합하는 방침이 시달되었다. 통합체육회는 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재산·회원을 승계하고, 통합종목단체는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관장하는 기구로 출발하게 되었다.



Hot Issue
2016 동계체전 해단식

10년 연속 상위권!
빛을 그린 인물들!

2016
전국동계체전
해단식

지난 2월 23일(수)부터 26일(금)까지, 4일간 강원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전라북도에서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가 열렸다. 부산선수단은 빙상·스키·컬링·바이애슬론·아이스하키 등 5개 종목에서 선수198명, 임원 69명 총 267명이 참가하여 종합성적 5위를 거두었다. 금메달 8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4개를 땀으며 전국동계체전 참가 사상 544점으로 최다득점을 기록하였다. 최초로 500점대를 넘어선 순간이었다. 부산선수단은 전국동계체전에서 2007년부터 10년 연속 종합 5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일구어 냈다.

시체육회는 지난 3월 24일(목) 부산시청 12층에서 서병수 부산광역시장(부산시체육회장), 이해동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박희채 부산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 박용수 부산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연합회장, 경기단체 임원, 유공자 등 많은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9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부산선수단 해단 및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유공자 시상에는 금메달 획득선수의 소속 단체장과 단체전 입상 팀 소속 단체장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었다. 빙상 쇼트트랙 남자초등부에서 금메달을 획득(문현준(초6), 김주성(초6))한 봉래초등학교 김 휘 교장과 부산삼육초등학교 박태운 교장에게 표창패가 전달되었다. 빙상 피겨 남자초등부에서 금메달을 획득(이동혁(초6))한 동양초등학교 최영욱 교장과 컬링 남자일반부(단체)팀이 동메달을 획득한 신성욱 부산시컬링협회장에게 역시 표창패가 전달되었다. 특히, 이날 화두가 된 알파인 스키 여고부 4관왕을 차지(강영서(고3))한 김보남 부산시스키협회 지도자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스키 크로스컨트리 여초부 복합 금메달을 차지(봉현채(초6))한 부산시스키협회 윤설호 지도자에게도 표창장이 수여됐다. 그리고, 빙상 쇼트트랙 남초부 1,500m 금메달(문현준(초6)) 부산시빙상경기연맹 허영욱 지도자, 빙상 쇼트트랙 남초부 2,000m 금메달(김주성(초6)) 부산시

빙상경기연맹 이상천 지도자, 빙상 피겨 남초부 싱글D조 금메달(이동혁(초6)) 부산시빙상경기연맹 이선영 지도자, 아이스하키 초등부 단체전 은메달(강대웅 외 7명) 부산마리나 김동엽 지도자, 컬링 남일반부 단체전 동메달(도준석 외 4명) 부산시컬링협회 김희철 지도자도 표창장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알파인 스키 여자고등부 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성일여자고등학교 국가대표 강영서 선수가 MVP로 선정되었다.



Hot Issue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교육

청소년기, 주말 운동을
통한 스포츠 즐기기!

신나는 주말!
생활체육학교
강사 교육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교육은 스포츠 지도자로서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익히고 학교에서 지도활동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산에서는 유능한 지도자가 양성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는 학생들이 성장기에 학우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배우고, 어른으로 커가는 데 중요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체육회는 지난 3월 5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부산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 50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박희채 부산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이기봉 부산광역시교육청 건강생활과 장학관이 참석하여 강사들이 체육 지도를 올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격려의 말을 전했다. 교육 프로그램은 6단계로, 사업홍보 영상을 30분간 상영한 뒤, 이기봉 장학관의 '토요스포츠데이와 학교체육의 이해'를 주제로한 특강이 이어졌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고희희 연구원은 '이동성폭력 예방과 대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밝고 유쾌하게 강의를 진행하여 지도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부산교육대학교 손준구 교수는 '이동운동의 스포츠사회·심리학적 이해'라는 주제를 다양한 예시와 질의·응답으로 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주대학교 강성길 교수가 '스포츠 상해 및 안전'이라는 주제로 자신이 실제 겪었던 에피소드를 들어가며 강사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수료식 및 총평을 마친 구·군 강사들은 대부분 생활체육 지도자 및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청소년들에게 더욱 신나는 주말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올해는 3월부터 전국 4,700개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1일 2시간씩 운영되며, 축구, 풋살, 탁구, 줄넘기, 농구, 티볼, 치어리딩, 플리잉디스크 등 학교 시설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역 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색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학교 안팎으로 나눠 실시한다. 부산은 16개 구·군 355개 학교 안(밖)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505명의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들이 활동하게 된다.

Hot Issue
아시아주르카네스포츠협회

아시아주르카네
스포츠협회 개소식 및
회장 취임식



아시아협회를 한국에 설치한 새로운 이정표 마련

신정택 아시아주르카네스포츠협회장은 "무거운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르카네는 고대 그리스의 이슬람 신화의 여러 요소를 결합하여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단련시키는 전통 스포츠입니다. 이란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 속에서 발전하여 이제 전 세계 57개국에서 즐기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08년 이곳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사회체육대회로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꾸준한 관심 속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등 오늘 아시아협회를 한국에 설치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962년 우호조약을 체결한 이란은 중동 제1의 사명 중에서 광활한 영토를 가졌으며 8천만 명의 인구 중 60% 이상이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인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이란의 역동성과 한국의 안정감이 주르카네를 통하여 상호 보완되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것이라는 확신을 합니다. 또한 스포츠뿐만 아니라 문화,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략적 파트너를 존경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양국이 자부심을 가진 무궁한 역사와 전통을 가졌다는 공통점에서 그 가능성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이란 간 수교 54주년을 맞는 해로서 의미가 더욱 큼니다. 이를 계기로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라고 전했다.



한국과 이란의 동반자적 역할 기대

이어서 한영산 한국주르카네스포츠협회장은 "오늘의 뜻깊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해 방문하신 IZSF의 모흐센 회장님과 이란 체육부 장관님, 그리고 아시아주르카네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용단을 내려준 저의 절친한 벗이자 동지인 아프카니스탄의 잭 달렉 전 아시아 회장님, 그리고 무엇보다 AZSF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주한 이란대사관의 하산 타헤리안 대사님을 비롯한 내빈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여망했던 작은 노력과 결실이 큰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나아가 주르카네를 통하여 인연 맺은 이란의 정재계 인사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한국의 기업이 이란에서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고대 페르시아 이슬람 신앙에서 비롯

'주르카네'는 힘의 집, 힘의 저장소란 의미이며, 고대 페르시아 이슬람 신앙의 여러 요소들을 결합하여 신체적 정신적 훈련을 통한 심신을 단련시키는 전통 스포츠이자 이란 국민의 사상과 종교가 조화된 신성한 무술로 인정받고 있다. 이는 과거 페르시아 군사들이 적군 몰래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기과 유사한 도구를 만들어 체력 훈련을 한 것에서 유래되었다. 경기는 동형 구조의 8각형 시합장에서 이루어지며 방패 들어 올리기, 팔굽혀펴기, 레슬링, 페르시아 밀 돌리기 등의 종목이 있다. 2004년 10월 11일 이란 정부산하 체육교육기구의 지원으로 테헤란에서 세계주르카네스포츠협회가 결성되었고, 2010년 11월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취임하는 AZSF 회장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이 취임함으로써 국가의 위상 제고는 물론, 주르카네와 더불어 경제활동의 역량이 가중될 것으로 확신한다. IZSF의 5개 대륙 대표 중 가장 규모가 큰 아시아 대륙을 대표하는 것이란 점에서 체육교류뿐 아니라, 다양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선도적 역할이 기대된다.



체육 통합화에 조직 역량 모아야

함께 누리는 체육환경 조성 위해 노력

김기천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식의약품안전과장 역임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

부산시민의 건강지수를 끌어올리고 의료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1월 1일 신설된 건강체육국은 전국적으로도 보기 드문 부서다. 건강과 체육을 한 데 묶어 업무를 처리하는 곳은 부산밖에 없기 때문이다. 발족 이후 건강체육국은 부산의 지역 특성에 맞춘 건강증진 사업으로 ▲건강지표 개선을 통한 시민건강 향상 ▲안전한 식품관리 및 위생문화 환경 조성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체육환경 만들기 ▲부산의료관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행복한 시민, 건강한 부산’을 비전으로 하는 건강체육국은 ‘연대와 협력을 통한 건강한 부산’ 및 ‘시민이 함께 만드는 안심도시 부산’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여왔다. 부산시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서비스, 시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 또한 건강하고 활기찬 부산시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김기천 건강체육국장은 새롭게 출발한 건강체육국의 입지를 다지고 제 역할을 해내고자, 보건직 출신 공무원으로서 그동안 쌓아온 역량을 아낌 없이 쏟아냈다. 부산은 음주율과 흡연율이 고위험군에 속하고, 암 사망률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 생활습관과도 관련이 많은 부분 이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조성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시는 건강과 체육에 유사한 점이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시민의 체력이 올라가고 건강지표도 좋아질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건강증진 업무 외에도 의료, 약무, 식품, 공중위생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 등의 의료산업은 물론, 체육 부분도 전문체육·생활체육·장애인체육으로 세분화해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25년 만에 하나로 통합된다. 체육인은 물론 부산시민의 지혜를 한 데 모으고자 하는 이 시점에서,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은 어느 때보다 바쁜 하루를 이어가는 중이다. 그 한 가운데서 김기천 건강체육국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쉽없이 뛰고 있다.

통합에 거는 기대 커

건강과 체육 업무의 통합은 결론적으로 서로의 연계성을 잘 포착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뜻에서 시작됐다. 건강체육국의 자리매김에서 보다시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되면서 그 효과에 대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이지만, 부산광역시 통합체육회의 운영이 활발해지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이 불러오는 선순환이 클 거라는 기대입니다. 전문체육 선수가 은퇴하더라도 생활체육의 우수한 지도자로 활동하며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낼 수 있겠지요. 생활체육에서도 전문체육인 못지않은 우수한 선수가 배출될 것입니다.”

김기찬 국장은 두 단체의 통합이 체육계의 저변을 넓히고 질도 높이는 훌륭한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부산시에서도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체육 진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강체육국은 생활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국민체육센터 건립·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활기찬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이어지면 예전의 유남규, 현정화 선수 등 우수한 인물을 배출해 부산 체육의 중흥기를 맞게 될 거란 기대도 크다. 무엇보다도, 생활체육 저변 확대로 인해 건강지표가 높아지고 국민 건강도 향상될 것이다.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전한 조직으로 발돋움해 잘 뿌리내리기를 바란다.

“운동은 남이 하라고 해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필요성을 느껴야만 할 수 있는 것이기에 시에서도 통합체육회와 논의하여 여러 지원 시책을 강구하겠습니다.”

2016년 체육시설 확충 계획

실내빙상시설 확충	남구 실내빙상장 건립	- 남구 백운포 아이스링크 1면, 200석 - 설계('16), 준공('18)
	북구 실내빙상장 대수선	- 링크장 안전펜스, 냉각탑 교체 등
구덕운동장 재개발		- 야구장, 실내체육관 철거 - 생활체육공원 조성 - 설계('16), 준공('17)
한국야구 명예의 전당		- 기장군 일광면 - 지하 1층, 지상 3층 - 명예의 전당, 박물관, 부대시설(야구테마파크 연계) - 설계('16), 준공('18)
부산 유남규 탁구체육관		- 영도 동삼혁신도시 내 - 지상 2층 - 탁구장, 샤워실 등 - 설계('16), 준공('18)
장애인형 체육센터 건립		- 사하구 을숙도 - 지하 1층, 지상 3층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 설계('16), 준공('17)



봉사로 제2인생 시작할 것

건강체육국이 출발한 지 1년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다. 무엇보다, 지난해 국가적으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다.

“메르스 확산을 막고 퇴치하기 위해 전 직원이 매달렸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고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퇴직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보람도 있고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6월 건강체육국장직을 끝으로 36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그에게 소회를 물었다. 체육, 보건, 의료 등 각종 업무와 행사로 바쁜 와중에 건강을 챙길 수 있었던 비결 또한 궁금했다. “건강을 지키는 데 별다른 비법은 없었습니다. 단, 아침마다 5시

반이면 집을 나서 러닝머신, 웨이트 트레이닝 등 간단한 운동을 꾸준히 했습니다. 운동 후에는 목욕을 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출근했습니다. 주말에는 해운대 장산 폭포사, 중봉, 옥녀봉을 즐겨 찾곤 합니다. 요란한 방법은 아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업무에 열중해 온 그에게 제2의 인생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될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긴 공직생활 동안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퇴직 후에는 휴식을 취하면서 어릴 적부터 누구나 꿈꾸던 일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회로부터 입은 은혜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사회에도 봉사하고 싶습니다.”

긴 세월을 부산시민을 위해 일해 온 만큼, 잠시 멈춤 뒤에 또 다른 길이 활짝 열리기를 응원한다.



통합체육회! 걱정인가? 기대인가?



마침내 통합됐다. 국민생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말이다. 결코 쉽지 않았다. 갈등과 반목이 컸다. 욕설과 고성도 오갔다. 그럴만했다. 어디 웬만한 조직들인가. 1920년 조선체육회로 창립한 대한체육회, 1968년엔 대한올림픽위원회와 대한학교체육회를 합쳐 거대조직이 됐다. 가맹단체만 전국 74개, 시도 849개였다. 17개 시도체육회, 18개 재외 한인 단체도 소속돼 있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어떠했나. 비록 1991년에 창립됐지만, '100세 시대 무병장수'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하는 우리나라 생활체육 총본부였다. 17개 시도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만 전국 68개, 시도 804개였다. 게다가 대한체육회에 없는 시·군·구 종목별연합회는 무려 6천6백 개나 됐다. 4개 협력단체와 42개 등록단체도 함께 했었다. 사실 통합 이슈는 새 정권이 설 때마다 튀어나오던 단골메뉴였다. 하지만 이 공룡들의 한 집 살이를 꾀하는 게 만만할 리 없었다. 그랬는데 이번 정부는 참 단호했다. 게다가 야당 의원들도 적극 앞장섰다. 그래서 만든 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13246호다. 지난 3월 21일엔 통합의 법적 등기를 마쳤다. 그 며칠 뒤 문화체육관광부도 체육정책실을 신설했다. 통합체육회를 돕기 위해서다.

그런데 말이다. 아직 안팎으로 뒤숭숭하다. 두 단체는 모두 법률개정 당시 통합을 반대했었다. 지난해 중앙통합추진위원회가 수차례 파행되기도 했다. 올해 통합체육회 발기인대회도 무산됐었다. 그 앙금이 말끔히 사라진 건 아니다. 오늘도 여러 지역에서 통합거부 다툼이 일고 있다. 법률에 명기됐던 '통합체육회'를 왜 '대한체육회'로 바꿨냐는 불멘소리도 들린다. 업무분장 공평성을 따지는 이들도 있다. 나는 우리 시 통합추진위원 11인 중 하나였다. 그랬는데도 아직 똑 부러지는 판단이 서질 않는다. 이번만큼은 내가 원고청탁을 망설였던 이유다. 때문에 존경하는 우리 체육인 동지들에게 묻고자 한다. "과연 어찌 하는 게 옳은가?" "다시 결별인가?" 아니면 "합심인가?" 어느 한쪽을 외칠 만큼의 식견이 아직은 내게 없다. 다만, 나는 두 단체의 관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 나는 엘리트 선수로 14년을 보냈다. 또 선수를 양성하며 보낸 세월도 6년이다. 나는 생활체육 단체와도 함께하고 있다. 그 세월이 벌써 10여 년이다. 여기에서 하는 저문활동과 특강은 이제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됐다. 그러니 내게 엘리트체육이 두 다리라면, 생활체육은 두 팔이다. 오늘 새벽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다.



그래! 엘리트체육은 우리나라의 두 다리이기도 하지. 그 믿음직한 다리로 버티면서 채 그간 국위를 선양해왔고, 민족의 애환을 달랠 것이며 자긍심도 맘껏 키워줬잖은가.

생활체육은 우리 국민의 두 팔이기도 하지.

때로는 아침체조광장에서,

때로는 퇴근길 스포츠센터에서,

때로는 산에서, 바다에서

낫선 이와 손잡고 소통하는 행복 활동이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엘리트체육인들은 참 대단하다. 세월이 흐를수록 선수층이 점점 얇아지고 있다. 봄날 실얼음처럼 말이다. 그 위태위태함을 뒤라서 알까. 그럼에도 애오라지 불철주야 구슬땀이니 문드러진 그 속내는 또 뒤라서 볼까. 그리고 보니 '인적 인프라 구축' 이것 하나만 생각해봐도 통합의 의미는 있을 것 같다. "엘리트 선수 양성 중심 학원스포츠를 '클럽 중심' 생활체육 시스템으로 전환하자. 아울러 학교체육에서 전체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자." 내가 마지막 통합추진위원회에서 당부했던 말이다. 이는 법률에 명시된 체육회 통합 취지이기도 했다. 나는 우리 시 통합추진위원들을 보며 낙관했다. 중앙과 타 시도의 회의가 한창 '아전인수 다툼'이었을 때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남이가!'였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했다. 실무자들의 후속회의 분위기도 그랬다고 들었다. 그래, 이게 바로 스포츠퍼슨십이고, 통 큰 부산인의 멋스러움이다. 생활체육이 손이 되고, 엘리트체육이 발이 돼 척척 맞는다면 못할 일이 뭔가. '통 큰 우리 부산에서 통합체육'의 위상을 제대로 보여주자. 하나씩 맞들고 하나씩 풀어나가자. 아자 아자! 통통 파이팅이다!



손준구
부산교육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꿈을 꾸다

이성재 기획홍보실장



엄동의 냉기 가지지 않은 2월의 마지막 날, 부산체육은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양 기구를 통합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은 생활체육을 지양분 삼아 저변을 키우고, 생활체육은 여가와 건강에 더하여 꿈나무의 대상을 넓히는 것이 통합의 아이덴티티입니다. 1963년 설립하여 지천명의 나이트를 훌쩍 넘긴 부산체육은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한 1976년 몬트리올올림픽부터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 21명의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하였습니다. 명실 공히 한국체육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온 실력과 명성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반면 생활체육은 25년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자발적 참여를 거듭한 시민의 호응으로 등록동호인 40만 시대를 열 만큼 비약적인 성장을 하였습니다. Synergy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로 '함께 일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 syn-ergos에서 파생한 언어입니다. 이는 두 개 이상의 것이 하나가 되어 독자적일 때 얻는 것 이상의 결과를 내는 작용을 말합니다. 경제적 측면으로 비유하자면, 비용 절감이 되면서 수익도 올리는 일거양득이라는 겁니다. 비야흐로 둘에서 하나가 된 체육이 효용과 수요에서 긍정적 효과를 거두지는, 전적으로 체육종사자의 몫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체육종사자의 영역은 통합체육회 임직원부터, 구군체육회와 종목협회 임직원, 지도자와 선

수, 동호인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을 제외한 모두를 망라합니다. 지금 우리는 통합체육이 펼쳐야 할 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꿈은 lucid dream처럼 분명한 감각과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스포츠로 부산과 부산사람의 이미지를 바꾸겠다는 도발적 의지가 필요합니다.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꿈은, 한 사람의 운동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꿈이 실현되고, 은퇴 후에는 영광스런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 라이프사이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계곤란과 사회적 단절을 겪는 반쪽 인생의 선수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꿈은,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학생선수와 일하면서 운동하는 평생직장의 실업선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공부도 않고 운동도 않는 성장기 학생들의 체질개선과, 은퇴하면 갈 곳 없는 실업선수의 미래도 통합체육이 해결해야 합니다.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꿈은, 우리의 경기성적보다 우위에 있는 시·도를 소속 선수와 동호인만으로 여유 있게 앞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다른 지역 선수를 돈으로 영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포함되며, 부산에서 태어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꿈은,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만 존재하는 스포츠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승자의 관용과 패자의 포용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인간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스포츠 소외계층이 아닌 모두가
 체육인인 부산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 운동하며 성장한 선수의 종단적 추적과 지원도 과제입니다.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꿈은, 페어플레이와 스포츠맨십만 존재하는 스포츠 무대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며, 승자의 관용과 패자의 포용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인간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승부를 조작하고, 뒷거래를 일삼는 파렴치한 세력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꿈은, 스포츠과학기반을 구축하여 체계적인 훈련을 지원하고, 부상치료, 재활훈련, 심리치러까지 완벽한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도자의 오랜 경험을 살리면서, 선수 개개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기력을 최고치로 올리는 follow-up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꿈은, 소모적이며 소비적인 체육환경을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스포츠용·복합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산업문화의 양성이 포함됩니다. 통합체육이 만들어가야 할 마지막 꿈은, 단 한 사람도 스포츠 소외계층이 아닌 모두가 체육인인 부산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포츠는 모두에게 꿈이며, 희망이자 휴식이어야 합니다. 스포츠무대 만큼 공정한 곳은 어디에도 없어야 합니다. 1963년 8월 28일 오후, 미국의 수도 워싱턴 링컨기념관 앞. Martin Luther King Jr 목사는 노예 해방 10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대행진에 참가하기 위해 운집한 25만 군중 앞에 섰습니다. 이날 집회는 미국 남부지역 흑인들의 비참한 삶과 안정된 고용을 요구하는 선언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I have a dream. Now is the time."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때입니다." 라고요. 비록 그의 꿈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만 우리는 지금 통합체육이 선수에게는 희망이며, 학생에게는 참교육이며, 시민에게는 힐링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꿈을 꾸며, 또 현실로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국제대회에서도 검증된 프로!
알파인 스키 접수,
지금부터 시작이다.

국가대표 강영서 선수



강영서 선수(한국체육대학교 1학년)는 지난 2월 24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제97회 전국동계체전 알파인 스키' 여고부에서 43초 36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뿐만 아니라 세부종목(슈퍼대회전, 대회전, 회전, 복합)에서 금메달을 따며 4관왕을 차지했다. 부산 하단중학교를 졸업한 강 선수는 고교 1학년 때인 2014 강원도지사배 전국종별 스키선수권대회 알파인 여자고등부에서 4관왕에 올랐다. 국제스키연맹(FIS) 랭킹도 역대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고인 250위를 기록한 바 있으며, 현재 국내 알파인 스키 여자부문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2014년 부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알파인 스키의 유망주인 그녀는 역대 한국 여자스키 최연소 선수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기도 했다.



선수생활을 하면서

어리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아는 강 선수는 움츠러진 우리 마음을 활짝 열리게 하였다.

“힘들었지만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수라면 모두가 겪는 부상이지요. 다른 선수들이 다 같이 합숙, 운동, 전지훈련을 할 때 저는 다리수술을 하고 10개월 동안 혼자 재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의 노력과 상관없이 긴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복귀해서도 성적에 대한 부담감과 부상에 대한 우려가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풋풋한 여고생 시절을 재활로 보냈던 시간들이 조금은 아깝고, 그 시기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때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스스로가 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운동하고 스키를 탈 수 있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앞으로 운동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강영서' 자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다짐해봅니다.”

마치 수상소감을 듣는 듯 막힘없는 말투에 오랜 시간 스포츠로 다져진 확고한 의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
자기가 사랑하는 스포츠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

스키로 시작된 스포츠 인생

강영서 선수는 아버지 덕분에 자연스럽게 스키를 접하게 됐고,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할 정도로 성장하게 됐다. 이에 얽힌 얘기를 들어보자.

“아버지께서 스키를 워낙 좋아하셔서 어렸을 때부터 주말마다 무주 리조트로 다니곤 했습니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나마 집과 가까웠고 스키가 재미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한번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주에서 열리는 부산스키대회에 아버지께서 재미삼아 저를 출전시키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처음 접해보는 대회였지만 즐기면서 땀 흘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많이 타본 결과인지 입상도 하게 되었고요. 그때부터는 취미로 겨울마다 스키레이싱캠프에 참가하였습니다. 훈련도 하고 전국대회에도 출전하다 보니 초등학교 6학년 때 동계체전에서 4관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현재까지 스키선수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지금도 그해 겨울을 잊을 수가 없어요.”

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뇌리에 박히는 말이였다.





끊임없는 훈련만이 살길이다!

1년 중 1달기량 숨을 돌리고, 나머지는 훈련에 몰입한다는 강 선수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필수적 요소였다.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훈련에 집중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운동선수로서 체력훈련은 물론이고 스키장에서의 기본훈련과 비디오 분석, 이미지 트레이닝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치, 감독,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해져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겨울시즌을 위해 1년을 준비하지요. 보통 3월에 겨울시즌이 끝나면 4월엔 휴식과 컨디션 트레이닝 정도로 몸을 풀고, 5월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대표 합숙이 시작됩니다. 약 2달간 체력훈련을 하고 여름 전지훈련을 다녀온 뒤, 잠깐 한국으로 돌아와 체력훈련을 하고 다시 가을 전지훈련을 나갑니다. 힘이 없지요. 이렇게 모든 전지훈련을 다녀오고 나면 11월 말부터 FEC 시리즈가 시작되는 중국을 기준으로 겨울시즌(우리나라 선수들 기준)이 시작됩니다. 전국대회나 동계체전뿐만 아니라 일반 국제경기인 FS 경기나 조금 더 수준이 높은 FEC(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체코 등 선수들이 참가함) 경기를 준비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계체전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국제 경기를 많이 경험하는 것도 선수를 성장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동계체전 알파인 스키 MVP 4관왕 등극!

‘금맥 캐기’에 성공한 강 선수는 영광의 수상 소감을 경기 결과로 답하는 듯하였다.

“가장 먼저,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가 생각났습니다. 제 생애 첫 올림픽이라 가슴 속 깊은 감동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다리부상을 안고 간 만큼 제 기량을 다 발휘하지 못해서 정말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다시 마인드컨트롤을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 전국대회와 동계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를 발판으로 앞서 말한 유로파컵이나 월드컵, 세계선수권, 올림픽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도 좋은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소 몸을 관리하는 운동이 있다면?

“운동을 한 가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스키선수로서 최적의 몸을 만들려면 다방면으로 운동능력을 향상시켜야 하고, 식단조절이나 적절한 휴식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시즌과 시즌, 연습 기간과 시합기간의 몸 관리 방식이 모두 다르지만 조깅이나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과 웨이트 트레이닝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시야를 넓혀 밸런스나 구기 같은 타 종목에 관련된 운동들도 접해보려 합니다.” 배움에 있어 종목을 국한하지 않는 자세와 꾸준한 관리에서 운동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배울 수 있었다.



인생의 신조와 앞으로의 계획

강 선수의 포부에서는 계속 전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다.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 단계씩 나아가는 모습에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진면목을 보는 듯하였다.

“지금은 스키가 정말 좋고 더 잘 타고 싶기에 현재 하고 있는 알파인 스키에 제 모든 열정을 쏟으려 합니다. 겨울시즌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당분간은 휴식을 취하고 개인운동을 하며 5월부터 시작되는 국가대표 합숙을 준비하려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엔 있을 아시안 게임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의 공통된 꿈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스키 이상으로 제가 좋아하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생기길 바라기도 합니다.”

관중, 후배들에게

운동에 대한 애착심, 알파인 스키에 대한 당부를 들을 수 있었다. “스키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스포츠 자체를 즐길 수 있는 것 또한 가장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행복하다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또, 잘하고 싶기에 열심히 하게 될 것입니다. 설령 부상을 당하고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잘 헤쳐나가리라 생각합니다. 2년 뒤엔 우리나라에서 2018 평창 올림픽이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잘 알지 못하는 종목이지만 유럽에서는 축구만큼이나 사람들이 열광하는 알파인 스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봄철엔 가족, 연인, 친구, 동호인들과 나들이 하면서 자전거 타기에 딱 좋은 계절이다. 자연을 만끽하며 일상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해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즐거움이 배가 되니 일석삼조 아니겠는가.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탄탄한 다리를 만들어 주며 복근 및 상체 운동에도 좋은 전신운동이다. 따뜻한 봄날의 자전거대회 현장을 생생하게 담았다.

페달 밟으며 만끽하는 봄의 절정! 2016 부산시민자전거대회



화명생태공원에서 건강한 은륜의 페달 밟다

시체육회는 지난 4월 9일(토) 화명생태공원 및 국토대장정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1,500명의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부산시민자전거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남녀노소 참가자들이 색상별로 장비를 착용하여 화사한 봄기운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코스는 가족코스(25km)와 일반코스(45km)로 나눠 진행됐으며, 가족코스는 화명생태공원에서 물금취수장을 반환하여 출발지점으로 돌아오고, 일반코스는 국토대장정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가야진사까지 다녀오는 코스로 진행됐다.

봄 향기 따라, 따뜻한 말 따라

이날 김기천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 황재관 북구청장, 김만중 북구의회 의장, 이상민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전종갑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장, 박희채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 김은우 사이클연맹 회장, 송미현 부산광역시체육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참가 시민을 응원했다. 김기천 부산광역시 건강체육국장은 "유산소운동, 근력운동이 되고, 특히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어 즐거움을 주는 더욱 좋은 운동이라고 본다"며 "오늘 대회 참가하신 분들 모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낙동강 길을 달리면서 겨울에 움츠렸던 몸을 활짝 펴고 자연과 하나 되는 기쁨을 느껴보시기 바란다"고 대회를 전했다.

이어서 박희채 부산광역시체육회 생활체육위원장은 "희망과 생명이 역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낙동강을 따라 사람과 자전거가 하나 되어 펼쳐지는 '2016년도 부산시민자전거대회'에 참가한 동호인 여러분들과 내빈들께 대단히 고맙다"며 "산과 강, 도시가 조화로운 이곳 화명생태공원의 자연과 함께 여유 있는 라이딩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코스이다. 봄 향기를 느끼며 안전한 라이딩을 하여 참가하신 여러분의 건강도 지키고, 함께 하신 분들 모두 친목도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가족코스 참가자 _ 사상구 학장동 거주 (참가번호 1283, 1284)

"4년 전부터 매해 참가하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너무 기분이 좋고 평상시에도 자전거를 타곤 하는데,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가 자전거대회 행사에 즐기면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생겨 추억을 많이 쌓아갑니다. 매번 아쉬운 점 없이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서 감사합니다. 이번 가을에는 부산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경치를 즐길 수 있는 광안리에서도 라이딩을 즐기 예정입니다."



일반코스 참가자_ 북구 화명동 거주 (참가번호 1257, 1263, 1270, 1271)

"아들 자전거를 보러 우연히 자전거 가게에 들렀다가 시민자전거대회 홍보 포스터가 붙어 있는 것을 보고는 친구에게 연락하여 우리 아들과 같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길을 따라 처음 참가해 보는데 너무 좋고, 부산에서 자연을 느끼며 편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환경의 녹색도시 부산을 만들기'의 한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활동을 하면서 누구나 겪을 가능성이 있는 것, 바로 부상이다. 당장 몸이 보내는 통증 신호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건강이 재산이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챙겨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기 마련이다. 지금 그 해답을 '체육 꿈나무 선수 공식 후원병원 협약'을 통해 찾아보자.



부산시체육회와 손잡은 지정 병원! 체육 꿈나무 선수 공식 후원병원 협약식

시체육회는 지난 3월 29일(화) 체육회관 2층 회의실에서 「체육 꿈나무 선수 공식 후원병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미현 사무처장, 김명진 부산볼링협회장과 협약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부산 관내 체육 발전에 관심이 높은 병원을 대상으로 체육 꿈나무 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공식 후원병원을 확보하여 협약 체결을 통한 엘리트체육 관심도를 높이며, 잦은 부상에 시달리는 선수들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병원은 부산의료원, 좋은삼선병원, 부산힘찬병원, 굿윌치과병원으로 부산의료원을 제외한 3개 병원에서는 꿈나무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1천만 원씩 기탁할 예정이며, 선수-소속 지도자가족 등 병원 진료비 및 장례식장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이 자리에서 송미현 사무처장은 "스포츠는 몸을 이용해서 일어나는 운동이기 때문에 부상 위험 노출이 높기 마련이다. 부상은 서서히 진행되는 부분이라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부터 예방적으로 스크린을 통해 검진을 하고, 선수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였다"며 "선수들뿐 아니라, 본회 및 회원종목단체 소속 지도자, 가족 등 병원 진료비를 감면하여 점차 확대시켜 나갈 것이다. 협약에 참여한 병원은 스포츠에 관심이 많아서 일반 환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스포츠 선수들, 더 나아가서는 일반 사람들이 즐기는 레크리에이션에서 수반되는 스포츠 범위 까지 확대하여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달의 MVP! 정말 멋진 샷! 배상진 前이사

지난 4월 7일, 이른 아침부터 세차게 오던 비가 그친 가운데 동래베네스트골프클럽에서 열린 부산생활체육골프동호회 월례회에서 배상진 전 이사가 홀인원을 기록하였다. 홀인원을 기록한 5번 홀은 핸디캡 7번으로 호리병 모양의 해저드와 4개의 벙커, 라인을 읽기 쉽지 않은 그린으로 구성되어 공략이 쉬운 편은 아니다. 배상진 前이사는 "홀인원을 하면 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진짜 홀인원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연을 즐긴 덕분에 얻은 행운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동래GC측에서는 회원인 배상진 이사에게 꽃다발과 홀인원 기념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준비위원회, '통합체육회 발기인 대회' 개최

통합체육회 정관 채택 및 공동회장을 비롯한 총 22명의 초대 이사진 선임

통합준비위원회(위원장 안양옥)는 지난 3월 7일(월) 롯데호텔 사피이어볼룸에서 '통합체육회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통합체육회 정관 채택 및 통합체육회의 공동 회장을 비롯한 초대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

통합준비위원회는 이날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를 통합한 통합체육회 정관에 각 위원 명의로 기명날인을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준비위원회 명의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 장관의 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통합준비위원회는 통합체육회의 초대 이사진으로 공동회장인 김정행 대한체육회장과 강영중 국민생활체육회장을 포함하여 곽향숙(전국검도연합회 회장), 금대성(전 경남생활체육회 회장), 김재열(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 김진용(대한트라이애슬론연맹 회장), 김진호(대한양궁협회 이사), 남상남(한국체육학회 회장), 문대성(IOC 위원), 박재갑(서울대 의대 명예교수), 서상훈(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신정희(대한하키협회 부회장), 심동섭(문체부 체육정책관), 이건희(IOC 위원), 이원성(전 경기도 생활체육회 회장), 이인정(대한산악연맹 회장), 이창섭(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정몽규(대한축구협회 회장), 정성숙(용인대 경호학과 교수), 조양호(대한탁구협회 회장), 조영호(전 대한배구협회 부회장), 한중희(전 SBS 스포츠부 부장) 등 22명을 선임했다.

이날 발기인 대회의 의장인 안양옥 위원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도 두 조직이 통합하는 취지에 백분 공감하면서 앞으로 한국 체육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했다"며, "이제 통합체육회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학교체육을 아우르는 단체로서, 새로운 한국체육 100년의 역사를 써나가기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체육 전담조직인 '체육정책실'로 정부조직 강화

문체부로 체육업무 이관 후(93. 3. 6.) 23년 만에 체육정책실 체제로 격상

우리나라 체육 육성 정책을 전담하는 '체육정책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설되어 체육 업무를 지원하는 정부 조직 체제가 다시 한 번 강화됐다. 신설된 '체육정책실'은 기존 '체육정책관'과 '체육협력관'을 아우르며 실 체제로 개편되어 앞으로 종합적인 체육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체육정책관은 이번 3월 대한체육회로 통합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균형 육성, 스포츠산업 진흥과 체육 분야 일자리 창출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체육협력관은 다가오는 '2016 리우하계올림픽' 참가 준비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동계올림픽 대회'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 '93년 체육부가 없어지고 문화체육부로 체육업무가 이관될 당시 3국 9과 체제가 이변 직제 개편을 통해 1실 2국 6과 체제로 개편되었다. 특히 이번 개편은 국 체제에서 23년 만에 체육업무만을 전담하는 '체육정책실'의 실 체제로 체육 관련 정부 조직이 격상되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문체부 김종덕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이 체육회 통합과 발맞추어 정부 조직의 전문성 강화와 국가적 큰 행사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의 초석이 될 것"이며, "스포츠를 통한 국민 행복과 창조 경제 실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스포츠가 건강한 문화와 활기찬 산업을 만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3월 10일(목) 대구육상진흥센터에서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선수·지도자, 체육계 인사, 스포츠산업 관계자 및 생활체육 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포츠 문화·산업 비전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가 개최된 대구광역시 스포츠 산업의 외연 확대와 수도권 중심의 스포츠 산업 불균형 해소를 위해 문체부가 2015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으로 선정했다. 대구·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섬유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서,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산업과 의료산업 또한 경쟁우위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평생 즐기는 스포츠로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 세계적 브랜드 육성으로 스포츠 산업 강국 도약, '지덕체(智德體)에서 '체덕지(體德智)'로 등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단체 통합이 이루어지는 올해를 체육행정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고 있는 만큼 국민에게 스포츠 비전을 보고하게 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전하면서 "오늘 보고대회에서 논의된 모든 정책은 실제 현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 과제를 더욱 구체화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4일부터 '체육주간'...전국서 행사 '풍성'

소외계층과 함께 스포츠 프로그램...안전 집중홍보교육 진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한체육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체육단체와 함께 '2016 체육주간'을 시행했다. 체육주간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매년 4월 마지막 주간에 실시되며, 정부기관과 지자체, 직장, 학교 등에서 자율적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문체부는 올해로 54회째를 맞는 체육주간을 계기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스포츠 행사뿐만 아니라 평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운 소외계층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또한, 안전사고 대비 및 폭력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사고후유장애를 극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폭력피해 청소년 가족캠프'를 개최하고, 태릉선수촌을 어린이와 일반인 등 총 150명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참가자들은 대표 선수들의 훈련시설을 견학하고 우리나라 체육의 역사와 선수촌의 역할 등을 배웠다. 또한 국가대표 사인회와 빙상장 무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 봅슬레이팀 선전에 전통강국 독일 '긴장'

“유력한 평창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떠오른 한국 선수들”

독일 일간지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시상대에 선 원유중, 서영우 선수가 마치 기적이라도 일어난 듯한 표정을 지어보였다”면서 “한국인인 그들은 이전까지 월드컵에서 수상을 해본 적이 없다. 봅슬레이 계통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세계의 나라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원유중 선수는 그간 시골벽적인 활약을 보여준 선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이번 시즌 동안 끊임없이 시상대에 올랐고 결국 세계 랭킹 1위를 차지했다”며 “전통적으로 북미와 유럽 선수들이 독식했던 봅슬레이 시상대 꼭대기 자리에서 이제 아시아인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원 선수의 세계랭킹 1위가 갖는 의미를 전했다.

이미 “한국은 쇼트트랙 강국이자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를 배출한 국가이지만 봅슬레이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종목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두 선수는 2018년 고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금메달 유력후보로 인정받고 있다”며 이들의 가파른 성장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효율적 사후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문체부·강원도·강릉시·대한아이스하키협회·대명, 공동으로 강릉을 빙상 메카로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강릉시(시장 최명희), 대한아이스하키협회(회장 정몽원, 이하 협회), ㈜대명홀딩스(사장 서준혁, 이하 대명)와 함께 2016년 3월 29일(화) 고양시 엠블호텔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남자 아이스하키 경기장으로 신설되는 '강릉하키센터'의 사후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 이후에 올림픽의 유산이 될 경기장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기 위하여 체결됐다. 이에 따라 강릉하키센터의 소유주체인 강원도는 대명과 경기장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대명은 관리위탁 기간 동안 경기장 시설을 사용하고, 빙상 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를 계기로 강원도, 강릉시, 협회, 대명과 공동으로 경기장 시설을 활용하여, 강릉을 빙상 스포츠로 특화된 도시로 만들고, 강릉에 신설되는 빙상 경기장 2개소(강릉하키센터, 강릉스피드스케이팅장)를 정부 차원의 직간접적 지원하에 '강릉 빙상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강릉 빙상 경기장의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활용 가치 및 국제규격을 갖춘 빙상 인프라로의 사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강릉이 세계적인 빙상 스포츠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부, 「청렴문화운동」 선포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준식)는 3월 4일(금)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전체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문화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이번 선포식은 교육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교육 형태로 이루어졌고, 전 직원의 서약과 선서를 통해 '어떠한 부정부패도 행하지 않고 용납하지도 않겠다.' 라는 결의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준식 부총리는 “그동안 교육부 자체적으로 부패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일부 구성원의 불미스런 사건들로 교육계 전체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교육부 전 직원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새롭게 다져 청탁 금지 등 '청렴문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나부터 실천한다.'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교육부는 “보다 청렴한 교육부 만들기”를 위해 100만원 이하의 금품, 향응,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간부에 대해 청렴교육 및 청렴도 평가를 더욱 강도 높게 실시하는 등 '교육부 청렴문화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여학생 체육활동 늘린다...중고교 실내체육실·탈의실 확충

남녀공학은 매주 하루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 운영 권장

교육부는 남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여학생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남녀공학 학교에서 매주 특정요일을 '여학생 체육활동의 날'로 지정해 체육관, 운동장, 학교 체육 시설, 탈의실 등 여학생이 우선 쓸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밝혔다.

2014년 여학생 체육활동 분석 결과 여학생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사격, 스케이팅, 수영, 요가, 댄스스포츠 등으로 나타났고, 운동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할 때와 체육교구를 마련할 때는 여학생 선호 종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또한 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체육교재와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 기준도 따로 정하고 학교체육진흥중앙위·지역위원회의 일정 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교육부 관계자는 “여학생의 자율적 체육활동과 운동하는 습관이 남학생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점을 감안해 학교에서부터 운동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군 체육회 소식

중구체육회

생활체육 무료교실 운영



중구체육회(회장 김은숙)는 3월 2일(수)부터 4월 29일(금)까지 두 달간 수영, 볼링 등 4개 종목을 개설한 '생활체육무료교실'을 운영하였다. 이번 교실 운영에 스피닝을 신규로 개설하였으며, 선착순 조기 마감되었다. 스피닝 교실도 성공적인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무료교실 운영을 통해 중구 주민들과 더욱 소통하여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할 것이며, 주민들의 체력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된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서구체육회

제2회 송도마린K-스포츠클럽 회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 개최



부산서구체육회(회장 박극제)는 지난 4월 16일(토) 송도스포츠센터 탁구장에서 단체전 및 단·복식 5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



2회 송도마린K-스포츠클럽회장배 생활체육 탁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6개 클럽의 탁구 동호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참가한 선수들은 기량을 아낌없이 선보였다. 대회 결과, 단체전 1위-영락탁구클럽, 2위-화목탁구클럽, 3위-서구청 탁구회가 각각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연합회장기 테니스대회 개최

이어서, 지난 4월 24일(일) 양남공원테니스장에서 5개 클럽, 150여 명의 테니스 동호인들이 모여 테니스 경기를 펼쳤다. 그동안 클럽활동을 통해 꾸준히 다져온 동호인들은 숨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수준 높은 경기력을 보이는 등 그동안 쌓아온 각자의 기량을 발휘하며 실력을 점검해 보였다.

동구체육회

동구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동구체육회(회장 박삼석)는 지난 3월 25일(금)에 부산시 동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동구체육

회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박삼석 의장을 비롯한 이일만 前동구생활체육회장, 박주석 前동구체육회 수석부회장, 동구청 직원 및 前동구생활체육회 대의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회의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 체육단체 통합 추진경과에 대한 보고와 부산광역시 동구체육회의 규정제정(안), 임원선임(안)에 대한 심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동구체육회 창립 정기 이사회 개최



동구체육회(회장 박삼석)는 지난 4월 8일(금)에 부산시 동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16년도 동구체육회 창립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박삼석 의장을 비롯한 이일만 前동구생활체육회장, 박주석 前동구체육회 수석부회장, 동구청 직원 및 시의원, 구의회의원, 동구체육회 임원들이 참석해서 자리를 빛냈다. 심의안건으로는 '동구체육회 임원 위촉의건', '동구체육회 사무국장 임명 동의의건', '동구체육회 정관(규정) 및 재규정 승인의건', '기타토의'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안건 모두 원안 통과되었다. 이번 이사회는 통합체육회의 창립총회이자 첫 정기 이사회로서의 의미가 깊었으며 많은 내빈이 참석하여 동구체육회의 앞으로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영도구체육회

영도구체육회 창립대의원총회 개최



영도구체육회(어윤태)는 지난 3월 25일(금) 영도구청 대회의실에서 '영도구체육회 창립·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총회에서는 신창호 부구청장님 등 구청 직원 및 대의원, 이사 60여 명이 참석하여 영도구체육회의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한마음으로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부산진구체육회

부산진구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부산진구체육회(회장 하계열)는 지난 3월 24일(목) 골든뷰 뷔페에서 하계열 회장을 비롯한 임원 및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진구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부산진구통합체육회 추진경과 보고, 부산진구체육회 규약승인 등 새롭게 태어난 조직의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 서로 화합하고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35회 부산진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부산진구생활체육회(회장 하계열)는 지난 4월 3일(일) 황령산축구구장에서 450여 명의 부산진구 클럽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35회 부산진구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우승-황령축구회, ▲준우승-충무축구회, ▲최우수선수상-추성호(황령), ▲우수선수상-김판우(충무)선수가 각각 차지했다. 이날 대회는 생활체육 부산진구축구동호인 상호간의 존중과 미덕,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동래구체육회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설명회 개최



동래구체육회는 지난 3월 4일(금) 동래구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토요일스포츠강사 시스템 교육 내용을 담은 '2016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여러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담당선생님과 토요일스포츠 강사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모두

가 한자리에 모여 학생들의 스포츠·레저 활동 증진, 청소년의 체력 강화 및 건전한 여가선용 지원 등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사업 취지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하는 장이 되었다.

동래구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동래구체육회(회장 전광우)는 지난 3월 23일(수) 동래구청 1별관 6층 대회의실에서 '동래구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동래구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구·군 체육회 소식

남구체육회

남구체육회 창립 대의원 총회 개최



남구체육회(회장 이종철)는 지난 3월 25일(금) 남구청 5층 대회의실에서 대의원인 정단체 종목별 연합회장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체육회 창립 대의원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 남구체육회 규정을 제정하고 초대 회장에게 이종철 남구청장을 만장일치로 추대하였으며, 임원 선임권한을 회장에 위임함으로써 통합 남구체육회를 발족시켰다. 이에 남구체육회는 생활체육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엘리트 체육의 위상을 강화하는 계기를 지속 마련함으로써, 체육을 통해 구민행복, 구민 화합,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선진 체육단체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남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춘계대회 개최



지난 4월 3일(일) 기장실내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통한 체력향상 및 동호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제26회 부산광역시 남구 배드민턴협회장기 춘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부경

클럽이 우승하고, 용산클럽과 동향클럽이 각각 준우승과 3위를 차지했다. 이번 춘계대회는 총 17개 클럽에서 520팀 800여 명이 참여하여 기량을 마음껏 뽐내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북구체육회

북구연합회장기 탁구대회 개최



북구체육회(수석부회장 오태원)는 지난 3월 13일(일) 강서구 소재 강서체육관에서 약 35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북구탁구연합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는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동호인의 경기력과 결속력을 강화시킨 자리였다. 대회 결과 ▲클럽대항 우승-쌍쌍패밀리탁구클럽 ▲준우승-월드탁구클럽 ▲3위-백양탁구클럽이 각각 차지하며 대회의 막을 내렸다.

제34회 북구연합회 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지난 4월 3일(일) 북구 화명생태공원축구장에서 약 400여 명의 축구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북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 결과 ▲공동우승-낙동축구회, 화명축구회 ▲공동 3위-덕천2축구회, 구포축구회가 각각 차지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설명회 개최

해운대구체육회는 지난 3월 4일(금) 해운대구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해운대구 초·중·고 40개교 청소년들의 체력강화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2016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운영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백선거 해운대구청장과 정상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장학사를 비롯하여 교육청 관계자 및 학교 담당교사, 스포츠 강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해운대구체육회 창립 발기인 총회 출범



해운대구체육회(회장 백선거)는 지난 3월 17일(목) 해운대구청 3층 중회의실에서 구청장을 비롯한 통합추진위원 11명이 참석한 '해운대구체육회 통합 관련 통합 발기인 총회'에서 해운대구체육회 규약, 해운대구체육회 임원선임 등 부의안건 2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통합)해운대구체육회를 출범시켰다.

제12회 해운대구탁구협회장배 초청탁구대회 개최



지난 4월 10일(일) 해운대구 교육청 내 공동실내체육관에서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해운대구 탁구동호인들과 함께하는 '제12회 해운대구탁구 협회장배 초청탁구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35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였다. 결과는 ▲남자단체전 우승-해운대조은, 한미음A, 다이아몬드A, 반송클럽 ▲준우승-신도사B, 레알, 해교B, 기장A ▲여자단체전 우승-해운대조은, 한미음A, 한미음C, 교육청클럽 ▲준우승-레알, 다이아몬드A, 기장, 다모아 클럽이 차지했다.

제20회 해운대구연합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지난 4월 10일(일) 보건소 코트 외 보조코트에서 지역발전과 테니스 동호인의 저변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23개 클럽 선수 350여 명이 참석하여 '제20회 해운대구 연합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결과는 ▲금배조 : 우승-솔 클럽, 준우승-백산2

차클럽, 3위-해동클럽 ▲은배조 : 우승-해송클럽, 준우승-삼호기든클럽 ▲동배조 : 우승-두산1차클럽, 준우승-동부올림픽 클럽, 공동 3위-3040, 해송클럽이 차지했다.

사하구체육회

제33회 사하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개최



사하구체육회(회장 이경훈)는 지난 3월 20일(일) 을숙도축구경기장에서 16개 클럽 총 8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33회 사하구연합회장기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많은 동호인들이 참가해 경기장 열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고 대회 결과, 1위-부민, 2위-감천, 3위-상록이 입상하였다.

제9회 사하구연합회장기 스쿼시대회 개최



이어서 지난 3월 27일(일) 동주대학교에서 총 106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9회 사하구연합회장기 스쿼시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여자 메이저 ▲1위-서지정, 2위-이은미, 3위-정수진 선수가 차지했고, 남자 메이저 ▲1위-주영길, 2위-조은호, 3위-박상욱 선수가 차지했다.

제11회 사하구생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이어서 지난 3월 27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제11회 사하구생활체육회장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수준 높은 팀들이 다수 참여해 각 팀의 기량을 발휘하며 실력을 점검해 보였다. 경기결과, 1위-사하클럽, 2위-승학클럽, 3위-다대클럽이 차지했다.

제22회 연합회장배테니스대회 개최



또한 4월 2일(토) 을숙도 테니스장 외 보조코트장에서 총 300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제22회 연합회장배테니스대회'를 개최했다. 대회 결과, ▲금배 : 우승-베스트, 준우승-승지, ▲은배 : 우승-베스트, 준우승-다대, ▲동배 : 우승-다대, 준우승-신익강변 팀이 입상하였다.

구·군 체육회 소식

금정구체육회

제10회 금정구연합회장배 족구대회 개최



금정구체육회(회장 원정희)는 지난 3월 6일(일) 스포빌 인조잔디구장에서 '제10회 금정구연합 회장배 족구대회'를 많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멋진 플레이를 펼친 대회 결과, ▲일반 1부 우승-형수(김재승) ▲일반 2부 우승-수정(김창호) ▲일반 3부 우승-비발로(김경남) ▲금정관내부 우승-금생A, 준우승-금생B, 공동 3위-하나A, 하나D ▲최우수선수상-금생A(김선기), 우수선수상-형우(최관우), 최우수심판상-김지만, 우수심판상-조영식이 차지했다.

금정구체육회 창립 대의원총회 개최



3월 23일(수) 금정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금

정구체육회 창립 대의원총회'가 개최됐다. 원정희 구청장, 박성택 생활체육회 회장을 비롯하여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정구체육회 통합추진 경과 및 안전심의회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이자, 앞으로 금정구체육회 발전 방향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제20회 금정구협회장기 클럽대항 테니스대회 개최



또한 지난 3월 27일(일) 약 500여 명의 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스포빌 테니스장 내 광장에서 '제20회 금정구협회장기 클럽대항테니스대회'가 개최됐다. 대회 당일 완연한 봄 날씨에 동호인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으며, 서로 간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는 계기가 됐다.

대회 결과로는 ▲금배 : 우승-비아클럽, 준우승-두일A, 3위-두일B ▲은배 : 우승-우로얄, 준우승-새남산, 3위-비아클럽 ▲동배 : 우승-금정클럽, 준우승-건설안전, 공동 3위-러브, 효정클럽이 입상하였다.

강서구체육회

강서구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강서구체육회(회장 노기태)는 지난 2월 25일(목) 강서구청 대회의실에서 강서구체육회의 출발을 알리는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창립총회는



강서구청 노기태 구청장이 초대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또한 성낙용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총 9명의 부회장과 22명의 이사, 전문교수의 위촉장 수여가 진행되었다. 이어서 노기태 회장의 "부산광역시강서구체육회를 위하여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화합과 이해를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강서구체육회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는 염원 아래 행사를 마무리했다.

연제구체육회

연제구체육회 정기총회 개최



연제구생활체육회는 지난 2월 26일(금) 부회장, 이사 등 3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제구체육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통합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이날 정기총회는 올 한 해도 다양한 체육행사와 체육교실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연제구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연제구체육회(회장 이위준)는 지난 3월 17일(목) 연제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연제구 통합체육회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3월 24일(목) 연제구체육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로써 연제구체육회의 출범을 알리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연제구체육회 축구협회장기대회 개최



지난 4월 3일(일) 아시아드주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동호인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연제구축구협회장기 대회'를 개최했다. 연제구축구협회는 이날 행사를 통해 동호인들의 화합과 발전을 전했으며 2016년에도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회 결과, 우승-부일축구회, 준우승-건우축구회가 차지했다.

사상구체육회

사상구 통합체육회 창립총회 개최



사상구체육회(회장 송숙희)는 지난 3월 25일(금) 사상구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상구 통합체육회 창립총회'를 통해 사상구체육회를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송숙희 초대회장을 비롯한 10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구체육회 규정과 임원 선임 위임 안을 심의·결정했다. 송숙희 회장의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하나 되어 사상구 체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당부 아래 이날 창립총회는 사상구체육회의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

생활체육생활체조 교실 운영

사상구체육회는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조교실을 운영한다. 생활체육교실 종목으로는 장애인 볼링, 장애인탁구, 탁구, 게이트볼, 테니스, 그라운드골프, 음악줄넘기, 배구, 스피닝, 줌바 등 생활체육교실을 10개 종목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3월 개강 종목으로는 장애인볼링, 장애인탁구, 게이트볼이 시작됐다. 생활체조교실 또한 삼락생태공원 및 서당골약수터 2곳에서 3월부터 시작했다. 운영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로, 사상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계획이다. 사상구는 '건강도시 사상만들기'의 일환으로 사상구 내 지도자들이 체조지원을 나가고 있다. 행사는 물론, 동사무소 및 외부로도 체조 파견을 가게 되면서 사상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기장군체육회

제2회 기장미역다시마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 개최



기장군체육회(회장 오규석)는 지난 3월 26일(토)과 27일(일) 양일간 기장체육관 주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제2회 기장미역다시마배 전국남·여 배구대회'를 개최했다. 참가팀은 남자클럽 3부 24팀과 여자클럽 3부 24팀으로 총 1,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로 배구는 지역민들의 생활체육 중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이날 대회 결과는 남자부 우승-충남 아산 BDP, 여자부 우승-부산 동부 배사미, 남자부 준우승-창원 에듀파워, 여자부 준우승-김해 내외 동아리가 입상했다.

회원 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축구협회

제35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및 순천시원배 축구대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회장 백현식)는 지난 4월 17일(일) 을숙도체육공원에서 1,5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제35회 부산광역시협회장기 및 순천시원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에는 30대부터 60대까지 67개 팀이 참석했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됐다.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

테니스협회 창립(통합) 대의원총회
부산광역시테니스협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3월 21일(월) 해암 뷔페에서 대의원 19명, 이원 3명, 통합추진위원 8명이 참석하여 '창립(통합)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추진 위원회 경과보고 안건을 시작으로, 1호의안 통합임시회장 선출의 건, 2호의안 통합정관 심의의 건, 3호의안 감사 선출의 건, 4호의안 임원선임의 건, 5호의안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의 건 보고로 마무리했다.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

부산시배드민턴연합회 워크숍
부산광역시배드민턴협회는 지난 3월 6일(일) 강서실내체육관에서 임원진 및 실무진, 구·군연합회 임원 및 실무진, 단위클럽 회장, 총무와 부산시배드민턴연합회 산하단체 여성부, 청·장년부 임원 실무진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2016년 부산시배드민턴협회의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부산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소개를 들은 후, 운영방안과 재확장 방법 및 심폐소생술을 실습했다.



부산광역시축구협회

박원욱 병원장배 신춘 족구대회
부산광역시축구협회(회장 이동석)는 지난 4월 10일(일) 부산환경공단 수목사업소에서 선수 및 심판 1,20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6 박원욱 병원장배 신춘 족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는 일반 1, 2, 3, 4부 총 4개 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08개 팀이 출전했다. 시상은 각 부별로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및 최다참가 팀상, 최다참가 구·군협회, 우수선수상, 우수감독상 등에서 다양하게 이어졌다.



부산광역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춘계대회

지난 3월 19일(토)과 3월 20일(일)에는 강서체육관·금정체육관·기장체육관에서 출전 3,600팀, 선수 및 임원 4,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35회 다비치안경제인배 부산광역시연합회장기 배드민턴춘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기방식은 16개 구·군대항전으로 복식별, 부별, 급별로 진행됐다.
▲경기상 1위 동래구연합회, 2위 부산진구연합회, 3위 해운대구연합회, 4위 남구연합회, 5위 사상구연합회 ▲입장상 1위 부산진구연합회, 2위 동래구연합회, 3위 강서구연합회 ▲질서상 남구연합회 ▲화합상 금정구연합회 ▲감투상 서구연합회 ▲노력상 영도구연합회 ▲장려상 수영구연합회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

국학기공협회 창립총회
부산광역시국학기공협회(회장 박명옥)는 지난 3월 15일(화) 국학기공 교육실에서 대의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학기공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1의안 임시회장 선출 상정을 시작으로, 제2의안 설립취지체택, 제3의안 정관심의회건, 제4의안 출연내용채택의건, 제5의안 회장선임의건, 제6의안 임원선출 및 임기결정의건, 제7의안 사무국설치의 건 상정으로 마무리했다.

회원 종목단체 소식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

부산광역시그라운드골프협회(회장 이길상)는 지난 4월 8일(금) 아시아드보조경기장에서 연합회 임원을 비롯한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부산광역시장배그라운드골프대회'를 개최했다. 김수창 고문은 "그라운드골프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여 노년층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매년 가입 인원이 늘어나고 있어서 뿌듯할 따름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경기는 단체전, 개인전 각 2라운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경기 결과, 단체전 우승 사상구, 준우승 금정구, 3위 기장군이 차지했다. 개인전에서는 우승 사상구(손주식), 준우승 금정구(박세영), 3위 해운대구(김상목)가 입상하였다.

부산광역시풋살연맹

제4회 부산광역시장기 풋살대회

부산광역시풋살연맹(회장 송재화)은 지난 4월 16일(토)과 17일(일) 양일간 카파풋살구장에서 선수와 심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부산광역시장기 풋살대회'를 개최했다. 경기는 초등부 32개 팀, 중등부 8개 팀, 고등부 8개 팀, 20대부 8개 팀, 30대부 6개 팀이 팀별 2~3경기씩 예선전을 거친 후 각각 8강, 4강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회에 참가한 김세훈 선수(부산세무고등학교 1학년)는 훌륭한 저글링 솜씨를 보여주며 우승을 다짐했고, 김현준 선수(청하초등학교 2학년)는 "4살 때부터 축구연습을 계속해왔습니다. 풋살을 하다 보면 계속하고 싶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잘하고 싶어집니다. 꿈이 축구선수이며 꼭 바르셀로나팀에 입단해서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국가대표가 될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대한민국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창립 대의원총회

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회장 이미애)는 지난 3월 1일(화) 대의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부산광역시줄넘기협회 창립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심의안건으로는 201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의 건, 정관 심의의 건, 회장 추대의 건, 임원 선임의 건, 기타 안건으로 진행되었고, 기타토의 후 총회를 마무리했다.



부산광역시치어리딩협회

치어리딩 지도자 프라임 2급 자격연수

부산광역시치어리딩협회(회장 최인용)는 지난 3월 13일(일)과 3월 20일(일)에 치어리딩협회 교육관에서 지도자 18명이 참가한 가운데 치어리딩 지도자 육성을 위한 '치어리딩 지도자 프라임 2급 자격연수'를 개최했다. 협회는 향후 정기적인 지도자 연수를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도자 육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옥천군 꿈나무 전국치어리딩대회

이어서 지난 4월 2일(토) 충북 옥천군에서 열린 '2016 옥천군 꿈나무 전국치어리딩대회'에서 어린이 치어리딩시범단 '봄봄 리틀치어리딩팀'이 액션 부문 1위, 퍼포먼스 부문 3위로 입상했다. 이번 대회에 단장으로 참가한 부산시치어리딩협회 최인용 회장은 "부산치어리딩의 역사는 길지 않지만 부산시체육회, 부산시교육청, 대한치어리딩협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었다. 또한 타 지역에 비해 학생들의 열의가 높아 단기간에 전국 정상급의 실력을 갖추었으며, 부산에서도 국가대표 선수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했다.

부산국민체육센터

2016년도 입학식 거행



교육시설을 투자, 안전하게 수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단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열과 성을 다하여 지도를 하겠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2016년 입학식을 지난 3월 2일(화) 80명의 단원과 함께 거행하였다. 꿈나무체육단은 1년 과정으로 유아교육, 영어, 동화구연, 유아국악, 수영, 체육, 태권도, 발레, 바둑 등 다양한 예체능 프로그램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박희재 부산광역시체육회생활체육 위원장은 "유아에 맞는



봄 소풍 나들이 진행

지난 4월 22일(금) 사상근린공원에서 꿈나무체육단 단원들의 첫 봄 소풍 나들이가 진행되었다. 본 행사는 꿈나무체육단 단원들이 단체생활을 하면서 질서와 협동심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행사였다.



신체체력 테스트 열러

4월 27일(수)부터 28일(목)까지 꿈나무체육단 단원들의 1학기 신체·체력 테스트가 진행됐다. 단원들은 처음으로 향후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과 체력을 테스트 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수영장 시설보수 진행

지난 2월, 에너지 절약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해 수영장 LED등 교체 및 천정 공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부산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3월 1일(화)부터 정상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한 회원은 "수영장 실내가 밝아 운동하기 더욱 좋아졌다"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오겠다"고 하기도 했다.

이현승 헬스지도자, 보디빌딩 선발대회 2위 입상



지난 4월 9일(토) 이현승 헬스지도자가 '미스터 창원 보디빌딩 선발대회'에서 일반부 -85kg 체급 2위에 입상하였다. 올해 3월에 입사하여 첫 시합으로는 미스터 경남 보디빌딩 선발대회 일반부 -85kg, 경상남도 도민체전 군부 -85kg에도 도전장을 내밀게 되었다.

초등학교 수영 교육 실시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2,500명을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실시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부터 수상안전 및 수영 기초교육을 통하여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하고 비상시 자기생명보호 능력 강화, 수영기능 습득을 통한 신체의 균형적 발달, 심폐기능 강화 등의 취지에서 마련됐다. 앞으로 학생 건강 증진 및 기초체력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복구국민체육센터

고혈압당뇨 예방 치료를 위한 '건강강좌' 개최



복구국민체육센터는 고혈압·당뇨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공개강좌를 지난 4월 8일(금), 다목적체육관에서 열었다. 이날 센터이용 회원 및 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 혈당검사 및 건강강좌가 진행됐다. 이날 고혈압, 당뇨 예방관리 건강강좌는 부산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한성호 교수를 초빙해 '고혈압과 당뇨예방 및 관리'를 주제로 '병에 대한 정보와 위험인자 및 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생활속 건강관리 예방법'에 대해 강의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센터는 생활습관 변화 등으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는 요즘, 건강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스스로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지속적 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국민체력100사업』 '체력측정운동처방증진교실' 무료운영




복구국민체육센터는 2014년부터 대국민복지사업인 '국민체력100사업'을 유치하여 2016년에도 '국민체력100사업'을 통한 체력인증서비스를 시작한다. '국민체력100사업'은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맞아 개인의 체력상태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평가한 후 운동처방을 제공해 주는 체육복지국책사업이다. 만 13세 이상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신체구성검사·체력측정·맞춤형 운동처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체력측정을 받은 300여 명을 대상으로 체력증진교실을 무료로 진행한다. 복구체력인증센터는 매주 월요일~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인터넷(<http://nfa.sports.re.kr>)이나 복구국민체육센터 방문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 부산체육시설 : 전문체육

01


종합운동장



위 치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주요 시설 아시아드주경기장, 실내수영장, 야구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등
프로그램 프로야구, 프로축구, 수영강습 등
운영 및 문의 체육시설관리사업소 051-500-2121
누리 집 <http://stadium.busan.go.kr>

03

강서체육공원



위 치 강서구 체육공원로 43
주요 시설 실내체육관, 하키경기장, 양궁장, 수영장 등
프로그램 배드민턴 강습, 수영강습, 체육관 대관 등
운영 및 문의 강서체육공원 051-970-1211
누리 집 <http://stadium.busan.go.kr>

05


금정체육공원 (스포원)



위 치 금정구 체육공원로 399번길 324
주요 시설 경륜장, 테니스장, 스포츠센터 (체육관) 등
프로그램 경륜/경정, 실내골프, 테니스, 배드민턴, 문화교실 등
운영 및 문의 스포원 1577-0880
누리 집 <http://www.spo1.org>

07


영도사격장



위 치 영도구 절영로 319
주요 시설 사격장
프로그램 공기총 10m, 권총 25m, 50m
운영 및 문의 영도사격장 051-404-1283
누리 집 <http://stadium.busan.go.kr>

02

구덕운동장



위 치 서구 망양로 57
주요 시설 주경기장(축구장), 야구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주경기장 개방, 아마추어 야구대회, 체육관 대관 등
운영 및 문의 구덕운동장 051-602-2211
누리 집 <http://stadium.busan.go.kr>

04

기장체육관



위 치 기장읍 기장대로 650
주요 시설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등
프로그램 배구, 핸드볼,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 활동
운영 및 문의 기장체육관 051-722-9051
누리 집 <http://stadium.busan.go.kr>

06

실내빙상장 (북구문화빙상센터)




위 치 북구 금곡대로 50
주요 시설 빙상장
프로그램 스케이트 강습, 빙상장 대관 등
운영 및 문의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051-309-4087
누리 집 <http://culture-ice.bsbukgu.go.kr>

→ 부산체육시설 : 해양레포츠

08

요트경기장



위 치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84
주요 시설 36동 14,013㎡ (본관 1동 3층 6,412㎡, 부대건물 35동 7,601㎡)
프로그램 요트·보트 정박, 대회 개최, 요트협회아카데미 운영 등
운영 및 문의 요트경기장 051-740-2211
누리 집 <http://stadium.busan.go.kr>

10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위 치 사하구 다대동 다대포해수욕장
주요 시설 임시계류시설, 지원시설 137㎡, 교육장, 사무실 등
프로그램 윈드서핑, 래프팅, 딩기요트, 카약 등
운영 및 문의 부산광역시윈드서핑협회 051-207-3700
누리 집 <http://cafe.daum.net/dmsac>

12

서낙동강 조정카누경기장



위 치 강서구 강동동 3655
주요 시설 본부동, 정고동
프로그램 선수 및 동호인 훈련
운영 및 문의 조정협회 051-973-2017/ 카누협회 051-941-1556

14

삼락 수상레포츠타운



위 치 사상구 삼락동 771번지 일원
주요 시설 계류시설, 산책로, 노천광장 등
프로그램 종합해양레저스포츠시설
운영 및 문의 해양소년단부산연맹 070-4140-0006

16

송도 해양레포츠센터



위 치 서구 암남동 135-5 (송도해수욕장 내)
주요 시설 관리동, 계류시설
프로그램 종합해양레저스포츠시설
운영 및 문의 해양소년단부산연맹 051-717-2883
누리 집 www.sek.or.kr

09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위 치 수영구 광안해변로 54번길 222
주요 시설 계류시설 172㎡, 편의시설(지상 1층)
프로그램 윈드서핑,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요트 등
운영 및 문의 부산해양레포츠연합회 051-755-0707/051-622-0201
누리 집 www.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kr

11

을숙도 해양레포츠센터



위 치 사하구 하단동 1149-21 일원
주요 시설 임시계류시설, 지원시설
프로그램 윈드서핑, 카약, 래프팅, 딩기요트 등
운영 및 문의 부산광역시윈드서핑협회 051-747-6175
누리 집 <http://cafe.daum.net/busanwind>

13

부산 수상레포츠스쿨



위 치 강서구 가락대로 1182번길 9
주요 시설 계류장, 교육장 등
프로그램 래프팅, 카약, 해양레저 스포츠 교육 등
운영 및 문의 해양소년단부산연맹 070-7540-6621
누리 집 www.sek.or.kr

15

화명 수상레포츠타운



위 치 북구 덕천동 815 (화명생태공원 내)
주요 시설 계류시설, 관리사무실
프로그램 종합해양레저스포츠시설
운영 및 문의 부산광역시체육회 051-364-1993
누리 집 www.화명수상레포츠타운.kr

→ 부산체육시설 : 생활체육

17

부산
국민체육센터



위 치 서구 대신로 150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생활체육, 문화강좌 등
운영 및 문의 부산국민체육센터
051-243-5959
누 리 집 www.bnsc.or.kr

18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부산사회체육센터)



위 치 해운대구 APEC로 68
주요 시설 수영장, 소극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생활체육, 문화강좌 등
운영 및 문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051-744-1181
누 리 집 saba.or.kr

19

한마음
스포츠센터



위 치 해운대구 세실로 175
주요 시설 수영장, 실내체육관, 실내골프장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장애인체육, 실내골프, 문화광장 등
운영 및 문의 한마음스포츠센터
051-709-0710
누 리 집 hmsports,bisco.or.kr

20

영도
국민체육센터



위 치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6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탁구장, 체조실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생활체육, 골프, 댄스, 스쿼시 등
운영 및 문의 영도국민체육센터
051-405-0050
누 리 집 www.ydsports.org

21

동래구
국민체육센터



위 치 동래구 미남로 110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헬스/요가, 댄스 등
운영 및 문의 동래구국민체육센터
051-550-6640
누 리 집 sports,dongnae.go.kr

22

남구
국민체육센터



위 치 남구 백운포로 110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골프연습장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아쿠아로빅, 스피닝, 골프 등
운영 및 문의 남구국민체육센터
051-626-8200
누 리 집 www.namgusports.or.kr

23

북구
국민체육센터



위 치 북구 화명대로 94번길 83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헬스지도, 배드민턴 강습 등
운영 및 문의 북구국민체육센터
051-365-7070
누 리 집 www.bukgusports.com

24

사하구
국민체육센터



위 치 사하구 감천로 68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헬스강좌, 골프, 배드민턴 강좌
운영 및 문의 사하구국민체육센터
051-202-2600
누 리 집 www.sahaksports.or.kr

→ 부산체육시설 : 생활체육

25

금정
국민체육센터



위 치 금정구 서부로 109
주요 시설 풀장, 헬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헬스강습, 요가/댄스 등
운영 및 문의 금정국민체육센터
051-519-4841
누 리 집 www.gjsports.or.kr

26

강서구
국민체육센터



위 치 강서구 공항로 811번길 10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요가실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요가, 에어로빅, 생활체육 등
운영 및 문의 강서구국민체육센터
051-970-2900
누 리 집 sports,bsgangseo.go.kr

27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위 치 연제구 쌍미천로 132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요가/댄스, 배드민턴 등
운영 및 문의 연제구국민체육센터
051-665-5121
누 리 집 sports,yeonje.go.kr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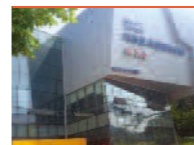
사상구
국민체육센터



위 치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골프장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생활체육, 골프 강좌 등
운영 및 문의 사상구국민체육센터
051-319-7330
누 리 집 www.ssnsc.or.kr

29

기장군
국민체육센터



위 치 기장군 일광면 체육공원1로 29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에어로빅실 등
프로그램 수영강습, 헬스강좌, 생활체육 등
운영 및 문의 기장군국민체육센터
051-792-4770
누 리 집 gmspo,gijangcmc.co.kr

30

수영
국민체육센터



위 치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12 (민락동, 민락초등학교 내)
주요 시설 요가, 스포츠댄스, 헬스장 등
프로그램 헬스, 요가, 에어로빅, 문화교실 등
운영 및 문의 수영구국민체육센터
051-755-8885

31

송도
K스포츠클럽



위 치 서구 송도해변로 121
주요 시설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등
프로그램 수영, 헬스, 생활체육 등
운영 및 문의 송도 K스포츠클럽
051-250-7330

32

부산진구
국민체육센터



2017년 2월 오픈(예정)

남미 최초의 올림픽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다

201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브라질’ 하면 커피, 샴바, 아마존, 축구의 나라가 떠오른다. 그렇지만 올해의 화두는 단연 올림픽이다. 리우데자네이루(이하 리우) 올림픽은 IOC 창설 이후 122년 만에 최초로 남미 대륙에서 열리는 스포츠 축제이다. 2016년 남미 최초의 올림픽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 28개 종목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206개국 이 참가한다. 약 10,500명의 선수들은 306개 금메달을 놓고 기량을 겨루게 된다.



브라질의 자부심, 마라카나

브라질은 높은 수준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대중성을 대표한다. 풀뿌리에서 나오는 정신, 그게 리우 시민의 본모습이다. 오는 8월 5일 개막식이 펼쳐질 마라카나 경기장은 하루에도 수천 명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브라질 축구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이다. 1950년, 2014년 세계 최초로 월드컵 결승전을 두 번이나 치른 마라카나 경기장은 브라질 시민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역대 육상경기는 개·페막식장에서 치러졌지만, 리우 올림픽에서는 마라카나 경기장에서 약 10km 떨어져 있는 주앙 아벨란제 경기장에서 열린다. 올림픽 사상 최초로 개·페막식장과 육상경기장을 분리하게 됐다. 육상 트랙이 없는 마라카나에선 축구경기가 치러진다.

경험 살려 힘 보태는 리카르도 프라도

시내 중심에 자리 잡은 2016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의 보안절차도 예전보다 한층 까다로워졌다. 부쩍 바빠진 이곳에서 1984년 수영 은메달리스트 리카르도 프라도는 이전 올림픽 경험을 살려 리우 올림픽 준비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동안 참가했던 국제대회들은 브라질에서 먼 곳에서 열려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영 관련 일을 브라질에서 열리는 올림픽에서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전했다. 우리 선수들도 은퇴 후, 경험을 살려 전문 분야로 재도전의 그림을 그릴 것이라고 본다.



12시간의 시차가 극복과제

브라질 리우는 우리와 지구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12시간의 시차로 밤낮이 바뀐다. 이른바 ‘올빼미 대회’가 된 것이다.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 조절이 중요하다. 양궁 대표 팀에도 비상이 걸렸다. 사상 처음으로 조명을 밝힐 야간경기로 치러지게 된 것이다. 올림픽 기간 리우는 오후 5시 반만 되어도 해가 지는데 경기는 저녁 7시에 끝이 난다. 양궁선수들은 맞춤훈련에 돌입했다. 오진혁 양궁 국가대표 선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 자기의 능력을 본인이 잘 알기 때문에 야간 조명에 익숙해지다 보면 조율점을 수정해서 경기장에서도 크게 무리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우리 대표팀, 금메달을 따기 위한 노력

태릉선수촌의 새벽, 선수들은 종목별 맞춤훈련을 통해 돌입하고 있다. 하체강화를 위해 스케이트 훈련을 도입한 레슬링, 반사 신경 확보를 위해 네트 사이에 검은 천을 두른 배드민턴.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신화를 썼던 발 펜싱의 선수대표팀은 훈련 과정에 현대무용을 접목했다. 김정환 펜싱 국가대표 선수는 “펜싱동작은 빠뜨린 동작이 많다. 유연성이 많은 무용동작을 함으로써 쉽게 몸을 낼 수 있는 준비운동을 하기에 좋은 훈련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종목 중 하나는 112년 만에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다시 채택된 골프이다. 박인비 선수는 골프코스를 찾았다.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된 골프코스라 전체적으로 벙커가 많고 페어웨이는 좁은 편이다. 그러므로 장타보다는 정확성이 더 요구되는 코스여서 우리선수들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림픽 골프는 부와 명예를 한 번에 거머질 수 있는 한판승부가 될 것인가? 컨디션을 잘 끌어 올리는 것이 관건이다.

4회 연속 TOP 10에 도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번번이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남미대륙 징크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2003년 아테네 올림픽 9위, 2008년 베이징 올림픽 7위, 2012년 런던 올림픽 5위로 2계단씩 뛰어 올랐다. 과연 이번 올림픽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게 될까? 변방에서 중심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스포츠가 다시 한 번 국민을 기쁘게 하고 세계를 놀라게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축구팬들의 시선이 한자리에 2016 프로축구 개막

우리나라에 프로축구팀이 처음 탄생된 것은 1980년 12월이었다. 당시 최순영 대한축구협회 회장은 프로축구 시대를 펼치는 선구자적인 위치에 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나라 최초의 프로축구팀인 할렐루야를 창단했다. 현재 프로축구팀은 1부 리그인 K리그 클래식 팀으로 광주 FC, 상주 상무, FC 서울, 성남 FC, 수원 삼성 블루윙즈, 수원 FC,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전남 드래곤즈, 전북 현대 모터스, 제주 유나이티드 FC, 포항 스틸러스 등이 있다.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 팀으로는 강원 FC, 경남 FC, 고양 HiFC, 대구 FC, 대전 시티즌, 부산 아이파크, 부천 FC 1995, 서울 이랜드 FC, 안산 경찰청, FC 안양, 충주 험멜 등이 있다.



봄바람과 함께 시작한 K리그 챌린지

드디어! 열화와 같은 성화와 함께 2016년 축구 시즌이 시작됐다. 참가구단은 전북 현대, 수원 삼성, FC 서울, 성남 FC, 울산 현대, 인천 유나이티드 등 K리그 클래식 6개 팀과 부산 아이파크, 대전 시티즌, 대구FC, 서울 이랜드 FC, 부천 FC, 고양 자이크로 FC, 안산 무궁화 FC, 충주 험멜 등 K리그 챌린지 8개 팀이다.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는 3월 26일(토)부터 11월 6일(일)까지 개최하며 홈 클럽 경기장에서 정규 라운드는 11개 팀이 220경기, 플레이오프는 최종순위 2위부터 4위까지 3개의 팀이 2경기를 치른다.

순위 결정 방식은 기존에 '승점-득실차-다득점-다승-승자승-별점-추첨' 순에서 '승점-다득점-득실차-다승-승자승-별점-추첨' 순으로 바뀌었다. 순위 경쟁을 벌이는 팀 간 승점이 같을 경우 골 득실보다 얼마나 많은 골을 넣었느냐가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각 팀들은 실점을 줄이기 위해 수비에 중점을 두기보다 보다 많은 골을 넣기 위해 공격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3월 26일, 부산 아시아드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에서 안산 무궁화 팀을 상대로 경기를 치른 결과, 3:1로 패했다. 상대 팀의 매운맛에 쓰라림을 느낀 부산 선수들은 남은 경기에 좋은 성적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기대와 관심이 커지는 'K리그 챌린지'의 2016 시즌이다.

승리 갈증 해소를 기대하는 올 시즌

'부산 아이파크'는 1990년대 말까지 4차례 K리그 우승을 하며 한국 최고의 축구팀으로 군림했다. 1997년에는 시즌 전관왕이라는 기염을 토했다. 2000년 현대산업개발이 축구단을 인수하면서 부산 아이콘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2002년 클럽하우스를 완공하며 재도약할 발판을 마련했다. 2004년에는 FA컵 우승으로 명가의 부활을 알렸고, 2005년 AFC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기도 했다. 2008년부터 리빌딩에 들어갔고 리그컵, FA컵 준우승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2015년, 승강플레이오프에서 수원 FC에 패하며 K리그 챌린지에서 2016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지난 시즌 1부 리그에서 동반 탈락한 부산, 경남 프로축구가 K리그 챌린지 개막과 함께 새 목표에 도전하게 됐다. 부산은 챌린지 우승으로 1부 리그 승격을 다짐했다. 부산 아이파크 선수들의 패스 연습에 이은 고난의 체력 테스트까지, 창단 이래 가장 혹독한 체질 개선을 단행하였다. 선수단 67%에 해당하는 24명의 선수교체와 신진 선수를 대거 발탁했다. 선수단의 절실함 그 자체로 올 시즌, 승리 갈증을 해소해 내리라고 본다.



부산 아이파크(BUSAN I PARK FC)

- K리그 우승 4회(1984, 1987, 1991, 1997)
- FA컵 우승 1회(2004)
- 리그컵 우승 3회(1997 전기, 1997 후기, 1998)
-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우승 1회(1986)
- 아프로 아시안 클럽 챔피언십 우승 1회(1986)

겨우내 기다렸던 소망 2016 KBO 리그 개막



야구장의 함성소리가 귀청을 울린다. 야구팬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야구 생각뿐이다. 야구 보러 가는 발걸음은 따뜻한 봄기운 같이 가볍게 스쳐 지나간다. 야구장은 치맥 먹으러~ 치어리딩 보러~ 스트레스 풀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선수들과 같은 목표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에 통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응원가를 부를 때, 역전포를 날릴 때, 목이 아프도록 응원했을 것이다.

10개 구단이 만들어내는 신화

지난 4월 1일(금), 대망의 2016시즌 프로야구 개막전이 5개 구장에서 펼쳐졌다. 2007년 이후 금요일에 개막을 하는 것은 9년 만이다. 9월 18일(일)까지 치러지는 경기는 팀당 144경기, 팀 간 16차전씩 총 720경기가 편성되었다. 지난해 롯데는 8위에 머물렀다. 올 시즌 비상을 준비하는 롯데자이언츠의 주안점은 수비이다. Team First, Fan First! 하나 된 팀으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리라 전망한다.

개막전, 가장 흥미로운 경기는 신구장인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의 대구 경기를 꼽을 수 있었다. 두 팀은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맞대결 팀이었다는 점과 함께 팀 내 최고의 투수들이 맞대결을 펼쳤다는 것이다. 삼성은 팀에서 최고 구위를 자랑하는 차우찬을, 두산은 '사자 킬러' 에이스 니퍼트를 내세웠다.

또한 한국 최초의 돔 구장인 고척 스카이 돔에서는 넥센 히어로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로 역사가 시작됐다. 넥센은 피어밴드, 롯데는 에이스 린드블럼을 내세웠다. 넥센은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전력의 상당수가 빠져나갔다. 반면 롯데는 상위권으로 꼽히는 팀이었지만 시범경기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2016 달라지는 것들

올 시즌부터 KBO리그의 모든 경기에서는 단일한 공인구를 사용한다. 공인구 제조사마다 반발계수 등 특성이 달랐기 때문에 신뢰도를 더욱 심어주고자 함이다. 경기 사용구로는 스카이라인 AAK-100을 2017 시즌까지 사용하게 된다.

비디오 판독도 기존에는 방송 중계 화면으로 판독을 시행하였지만, 미국 메이저리그처럼 외부 비디오 판독 센터를 구축하기로 결정되어 각 구장에 고정된 카메라로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 야구 최초의 돔구장도 KBO리그 팬들을 찾아온다. 넥센은 고척 스카이돔을 새 보금자리로 사용하면서 폭우나 장마가 와도 야구를 걱정 없이 즐길 수 있게 됐다.



2016년 5월 롯데자이언츠 경기일정

날짜	요일	시각	홈팀	원정팀	장소
1	일	14:00	롯데	NC	사직
3	화	18:30	KIA	롯데	광주
4	수	18:30	KIA	롯데	광주
5	목	14:00	KIA	롯데	광주
6	금	18:30	두산	롯데	잠실
7	토	17:00	두산	롯데	잠실
8	일	14:00	두산	롯데	잠실
10	화	18:30	롯데	넥센	사직
11	수	18:30	롯데	넥센	사직
12	목	18:30	롯데	넥센	사직
13	금	18:30	삼성	롯데	대구
14	토	14:00	삼성	롯데	대구
15	일	14:00	삼성	롯데	대구
17	화	18:30	SK	롯데	문학
18	수	18:30	SK	롯데	문학
19	목	18:30	SK	롯데	문학
20	금	18:30	롯데	두산	사직
21	토	17:00	롯데	두산	사직
22	일	14:00	롯데	두산	사직
24	화	18:30	롯데	LG	울산
25	수	18:30	롯데	LG	울산
26	목	18:30	롯데	LG	울산
27	금	18:30	한화	롯데	대전
28	토	17:00	한화	롯데	대전
29	일	14:00	한화	롯데	대전
31	화	18:30	롯데	KT	사직



미식축구(American football) 미국의 자유로움을 담은 스포츠

신대륙이 발견된 뒤, 개척자들은 유럽에서 가지고 들어온 축구력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축구경기를 만들었다. 바로 미식축구이다. 영어로는 아메리칸 풋볼(American football)이라고 하지만 풋볼이라고도 불린다.

영국, 캐나다에서 시작되다

미식축구는 1823년 영국에서 시작되었던 럭비 경기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변형된 스포츠다. 1869년 러트거스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이 뉴저지 주 뉴브런즈윅에서 경기를 한 것이 미국에서 거행된 최초의 경기였다. 이 경기가 첫 공식 경기로 인정되는데, 당시 25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었다. 그 뒤 1874년, 캐나다로부터 럭비가 소개되어 럭비 경기의 룰이 채용되었고 럭비축구의 룰을 개정하여 새로운 축구의 형태를 만들어냈다.

미식축구의 특성은 온몸으로 돌진하여 격돌하는 것이다. 이는 용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경기는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그리고 공격과 수비를 엄격히 구별하여 맡은 역할, 책임, 희생, 봉사의 정신을 기른다. 단,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함에 따라 지나치게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 크게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경기를 치르는 선수들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공격과 수비를 넘나드는 스타일

공식 시합시간은 모두 1시간이며 15분씩 4번의 쿼터로 구성된다. 각 쿼터별로 득점한 점수를 합하여 많은 점수를 얻은 팀이 이긴다. 1쿼터와 2쿼터를 전반, 3쿼터와 4쿼터를 후반으로 나눈다. 공격팀 선수를 그 팀 엔드 존에서 수비 선수가 태클을 할 경우, 수비 팀이 세이프티 점수 2점을 얻게 된다.

터치백은 세이프티와 같은 유사한 상태이지만 큰 차이가 있다. 수비팀이 자신의 진영으로 들어온 볼을 확보한 후에 엔드존에서 데드가 된 경우엔 공격팀의 득점이 인정되지 않고 터치 백이 된다. 터치 백이 되면 수비팀에게 자기의 진영 20야드 상에서 공격권이 주어진다.

터치다운은 공격 팀 선수가 상대팀 엔드 존에 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6점을 얻게 된다. 터치다운을 한 팀에게 3야드 지점에서 한 번의 트라이가 주어지는데, 이 공격을 키클로 골대를 넘기면 1점을 얻게 되고, 러닝 플레이나 패싱 플레이를 통해 엔드존으로 들어가게 되면 2점을 얻게 된다. 필드 골은 경기 중 드롭킥이나 플레이스 킥으로 골대를 넘겼을 경우를 말하는데 3점을 준다. 세이프티와 터치 백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엔드존으로 들어가게 한 원인이 어느 팀에 있느냐이다. 따라서 공격 측이면 터치 백, 수비 측이면 세이프티가 된다.



지역의 특색을 담은 대회 명칭

미국에서 미식축구 시즌은 9월부터 11월 말까지이다. 그 사이에 각 지역에서 시합이 진행되어 지역별 우승팀은 시즌 오프에 진행되는 선수권 시합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 시합이 치러지는 경기장이 사발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볼 게임이라고 하며, 해당 개최지의 명물이나 특산품의 이름과 합쳐져서 대회의 명칭이 되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뉴올리언스의 슈거볼, 마이애미의 오렌지볼, 패서디나의 로즈볼 등이 있다.

프로 미식축구는 1920년 미국프로미식축구협회가 결성되었고, 1922년 북아메리카프로미식축구리그(NFL)로 명칭을 바꾸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리그는 야구와 마찬가지로 아메리칸리그와 내셔널리그로 나뉜다. 풋볼 경기에는 10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모일 정도로 풋볼은 대중에게 인기를 끈다.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풋볼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고, 세계로 더 나아가기 위한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도는 있어도 왕도는 없다 골프스윙의 기초동작

대부분 골퍼들은 하프스윙과 풀스윙을 익히는 연습부터 골프를 시작한다. 타격동작이 완벽하지 않아도 스윙의 형태가 정확하면 좋은 출발을 한 셈이다. 올바른 스윙 자세는 정확한 타격에 보다 빨리 닿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다. 골프는 높은 정확성이 필요한 스포츠인 만큼 입문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윙의 기초동작을 착실히 익히는 것이다.



01



어드레스 (Address)

어드레스란 플레이어가 자세를 취하고 클럽을 지면에 댄 순간을 말한다. 어드레스의 핵심은 상체 숙임과 무릎 구부림의 정도, 양발의 무게 배분이다. 양발을 어깨너비보다 조금 좁게 벌리고 서서 허리를 곧게 편 후 양손을 허리까지 올리고 클럽을 몸 앞쪽으로 길게 뻗는다. 그 다음 몸과 팔 사이의 각을 유지하면서 클럽헤드가 잔디에 살짝 닿을 때까지 허리를 숙인다.

02



백 스윙 (Back Swing)

백 스윙은 플레이어의 몸과 클럽을 신체 오른쪽 상단에 옮겨 놓는 동작이다. 어깨에서 골프채까지는 하나로 합쳐진 상태이므로 그립 끝은 언제나 자신의 몸 쪽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어깨의 회전이 크면 클수록 비거리가 증대된다.

03



톱 오브 더 스윙 (Top of the Swing)

백 스윙의 정점이자 다운 스윙의 시발점이 되는 동작으로, 일관된 스윙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톱 오브 더 스윙이 필요하다. 상체를 많이 틀수록 공에 더 많은 힘을 전달할 수 있다. 단, 클럽을 무리하게 올리거나 회전하면 상·하체의 균형이 무너져 공이 궤도에서 벗어날 수 있다.

04



다운 스윙 (Down Swing)

다운 스윙은 클럽이 임팩트 구간에 이르는 동안 클럽 페이스의 회전 속도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동작이다. 다운 스윙을 할 때는 백 스윙을 통해 꼬였던 몸이 풀리면서 동시에 클럽이 떨어진다느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 있는 스윙이다.

05



임팩트 (Impact)

클럽 헤드가 공을 가격하는 순간을 일컫는다. 강한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드러운 그림이 필요하다. 임팩트 직전 양손은 헤드보다 앞서고 머리는 볼 뒤쪽에 위치해야 한다. 어드레스 할 때 상체의 굽힘 각과 임팩트 할 때의 상체 굽힘 각은 동일하게 유지하고, 왼팔은 펴져 있는 것이 좋다.

06



팔로스루 (Follow Through)

팔로스루란 공을 친 후 팔의 동작을 계속 진행해 탄력을 최대화하는 일을 말한다. 동작이 정확하게 일어날수록 공의 방향은 정확해지고 비거리도 커질 수 있다. 목표 방향이 12시라고 가정했을 때, 클럽 헤드의 방향은 10시로 향하게 한다.

07



피니시 (Finish)

피니시 동작은 스윙의 마무리 시점으로, 이 동작이 잘못되면 공이 제대로 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상을 입을 위험도 크다. 짜형 태의 피니시를 만들면 허리 부상을 위험도 줄이고, 몸통 스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근력운동, 왜 우리 몸에 필요할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 바야흐로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 왔다. 겨우내 이어진 실내 생활에 익숙해진 우리 몸은 운동 부족과 체력 저하로도 이어지기 쉬워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이나 직장인에게는 근력을 키우는 것이 체력의 기초를 다지는 만큼 중요한 건강 관리 방법이다. 운동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자신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 꾸준히 실행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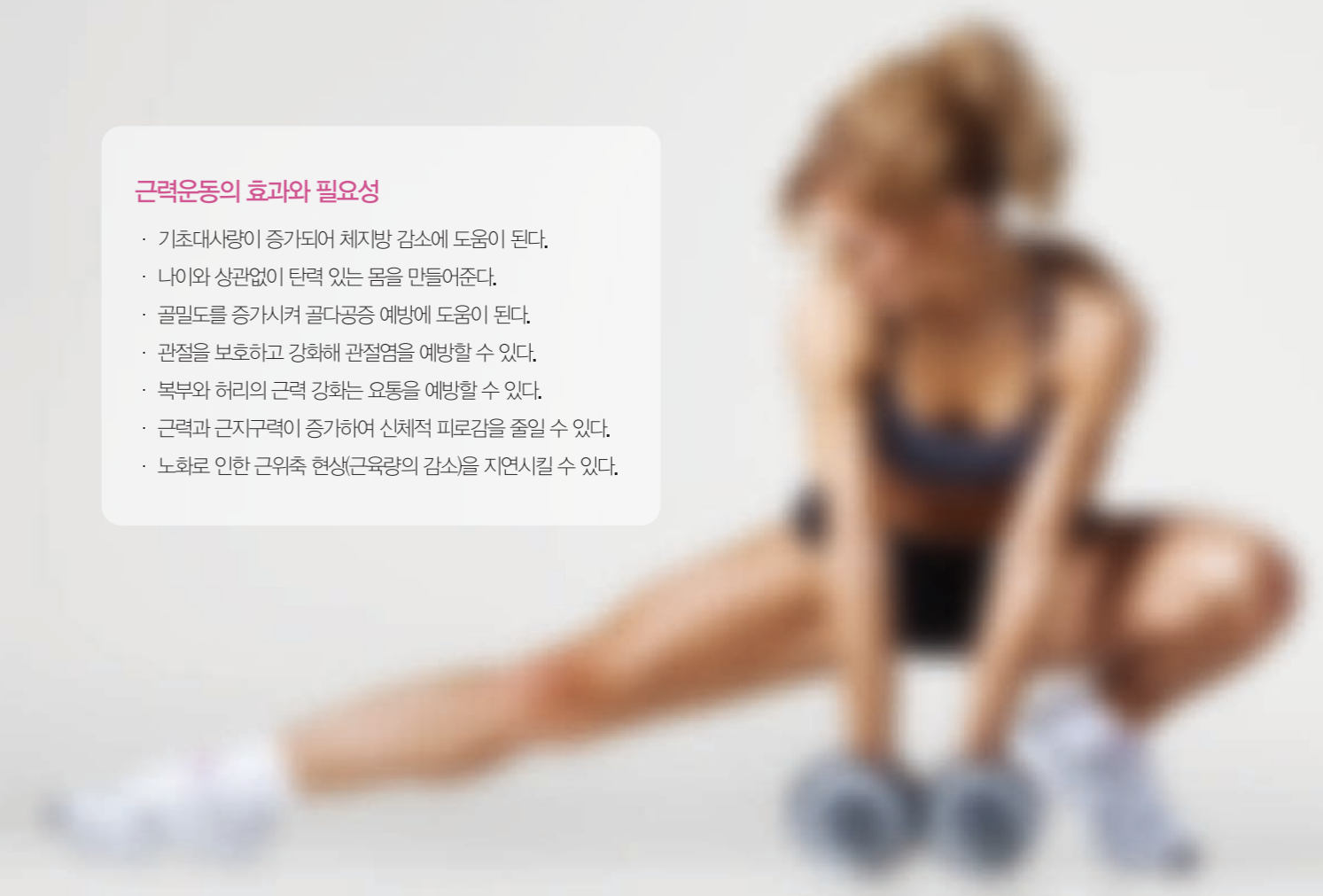


근력운동 바로 알기

근력운동이란 '근육의 힘'을 일컫는 근력을 기르기 위해 근육에 일정한 무게를 가하는 운동이다. 근력 운동은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으며, 근력과 지구력 모두를 발달시킬 수 있다. 대표적인 근력운동으로는 상체 근력을 기르는 벤치프레스, 숄더 프레스와 허리 및 하체 근력을 기르는 데드리프트, 스쿼트 등이 있다. 보통 덤벨이나 바벨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나 부상의 위험이 있는 환자라면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운동하는 것이 좋다.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근력 운동으로는 푸시업, 와이드 스쿼트, 레그 레이즈 등이 있다. 근력운동을 할 때는 대근육군 운동에서 소근육군 운동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근육이 대근육에 비해 쉽게 피로해지기 때문에, 피로를 덜 느끼는 대근육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운동 순서는 대퇴와 허리-가슴 등과 다리 뒤쪽-하지-어깨-복부-상완 전면 차례대로 실시하는 것이 좋다. 운동 강도는 본인이 한 번에 들 수 있는 정도의 무게로 15회를 반복하면 되고, 운동 횟수는 최소 주 2회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 단, 봄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크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는 운동 전 혈압을 꼼꼼히 점검해 보는 등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력운동의 효과와 필요성

- 기초대사량이 증가되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
- 나이와 상관없이 탄력 있는 몸을 만들어준다.
-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
- 관절을 보호하고 강화해 관절염을 예방할 수 있다.
- 복부와 허리의 근력 강화는 요통을 예방할 수 있다.
- 근력과 근지구력이 증가하여 신체적 피로감을 줄일 수 있다.
- 노화로 인한 근위축 현상(근육량의 감소)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근력운동, 오해와 진실

많은 사람들이 근력운동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점이 있다. 근력운동은 근육만 키울 뿐,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그것이다. 물론 근력운동으로만 체지방을 감량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 근력운동은 무산소 운동으로, 지방보다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력운동이 체지방 감소에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근력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면 기초대사율을 높여 체중감량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요요현상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근육운동을 하면 남자처럼 근육이 커질까 봐 걱정하는 여성들도 있는데 이 역시 오해다.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성인 남성에 비해 체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지만 근육 면적당 근력 수준은 비슷하다. 또한 에스트로겐이 많이 분비되어 남성과 같은 우람하나 근육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간혹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우람한 근육의 여성은 유전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은 특이체질이거나, 지속적인 고강도 훈련을 실시한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근력운동을 한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처럼 근육이 커질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특히, 청소년이 근육운동을 하면 키가 안 클 것이라는 속설도 잘못된 생각이다.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에 가해지는 적당한 자극은 성장을 촉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올바른 자세를 위해 적정 수준의 근력 운동을 하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단, 너무 무거운 도구를 이용한 근력운동은 성장판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어 피하는 것이 좋다.

부산광역시체육회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TEL 051.500.1300

www.sports.busan.kr

부산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TEL 051.243.5959

www.bnsc.or.kr

● 어린이 배드민턴·탁구 교실 회원모집 안내

모집기간 | 2월 부터 3개월 단위 (셋째주 월요일부터 선착순 접수)

교실명	운 영 계 획				인원 / 교실 수	비 고
	기간	시 간	요일	수강료(월)		
배드민턴 교실	1월 ~12월	09:00~10:30 10:30~12:00	토요일	27,500원	30명 / 고학년 교실 30명 / 저학년 교실	선착순 접수
탁구 교실	1월 ~12월	09:00~10:30 10:30~12:00	토요일	27,500원	30명 / 저학년 교실 30명 / 고학년 교실	선착순 접수

* 정원 미달 시 폐강 될 수 있으며, 폐강 시 환불해 드립니다.

● 배드민턴 프로그램

이 용 일 | 월요일 ~ 금요일 수업(교시)별

레 스 일 |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수요일은 자율운동) / 개인별 일주일 2회 레슨 실시
문의전화 | 051)500-7992

교육일	교시	시간(각 90분)	정원	수강료(2개월)	지도자
월요일~금요일	1	06:00 ~ 07:30	40명	78,000원	남궁안
	2	07:30 ~ 09:00	40명	78,000원	
	3	09:00 ~ 10:30	40명	78,000원	조원규
	4	18:30 ~ 20:00	40명	78,000원	
	5	20:00 ~ 21:30	40명	78,000원	

● 헬스장 프로그램 안내

이 용 일 | 월~금 06:00~22:00, 토요일 06:00~18:00

휴 관 일 | 일요일 및 공휴일

문의전화 | 051)500-7992~3 (담당:박대현)

1) 헬스

프로그램	이용개월	이용요금	할인율
헬스(주 6일)	1개월	48,000	
	3개월	129,600	10% 할인
	6개월	259,200	10% 할인
	12개월	489,600	15% 할인

* 개인사물함: 3,000원(1개월, 보증금 10,000원 별도), 세탁비: 5,000원(1개월)

2) G·X 프로그램

시 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용요금
09:30~10:20	에어로빅	파워로빅	에어로빅	파워로빅	에어로빅	월, 수, 금 40,000원
10:20~11:10	파워로빅	짐스틱	파워로빅	짐스틱	파워로빅	
11:20~12:00	필라테스	필룩싱	필라테스	필룩싱	필룩싱	
19:00~19:50	다이어트댄스	다이어트댄스	다이어트댄스	다이어트댄스	다이어트댄스	화, 목 30,000원
20:00~20:50	Aerokick	Aerokick	Aerokick	Aerokick	Aerokick	

● 농구 프로그램

접수문의 | 051)500-7992

수업문의 | 배호철 (010-4528-2307)

교육일	교시	시간(각 90분)	정원	수강료(3개월)	대상
매주 토요일	A	08:30 ~ 10:00	30명	99,000원	초등학생
	B	10:00 ~ 11:30	30명	99,000원	

● 수영 프로그램

(부가세포함)

프로그램	시 간	강습일	참가비	대 상			
새벽수영(격일)	A반	06:00~06:50	월·수·금 화·목·토	성인 51,700			
	B반			노인 48,400			
새벽수영(상급)	C반	07:00~07:50	월 ~ 금	성인 67,100			
	D반			노인 52,800			
생활수영(매일)	A반	07:00~07:50	월 ~ 금	성인 67,100			
	B반			초소년 60,500			
어머니수영(격일)	A반	09:00~09:50	월·수·금 화·목·토	성인 51,700			
	B반			노인 48,400			
헬빙수영	A반	10:00~10:50	월·수·금 화·목·토	성인 51,700			
	B반			노인 48,400			
성인수영	A반	11:00~11:50	월 ~ 금	성인 67,100			
	B반			노인 52,800			
실버수영	A반	14:00~14:50	화·목(토)	44,000			
	B반			65세 이상			
성인수영	A반	15:00~15:50	월·수·금 화·목(토)	성인 51,700			
	B반			노인 48,400			
돌고래수영	A반	16:00~16:50	화·목(토)	39,600			
	B반			초 1 ~ 6년			
하마수영	A반	17:00~17:50	화·목(토)	39,600			
	B반			초 1 ~ 6년			
직장인수영(격일)	A반	18:00~18:50	월·수·금	성인 51,700			
	C반			노인 48,400			
직장인수영(매일)	A반	19:00~19:50	월 ~ 금	성인 67,100			
	D반			초소년 60,500			
아간수영	A반	21:00~21:50	월 ~ 금	성인 67,100			
	B반			노인 52,800			
아쿠아로빅	A반	12:00~12:50	화·목·토	성인 60,500			
	B반				15:00~15:50		
	C반					11:00~11:50	
	D반						12:00~12:50
	E반						
F반	13:00~13:50						
주말수영(배영이상)		A반	15:00~15:50	토	45,000		
		B반			25,300		
월 자유수영		A반	06:00~07:30	월 ~ 금	성인 53,900		
		B반				08:00~09:30	
	C반	10:00~11:30					
	D반						17:00~18:30
	E반						
	노인 33,000						
	초소년 46,200						

* 14시부터 (토요일은 강습이 아닌 자유수영입니다.)

● 요가 프로그램

(부가세포함)

프로그램	시 간	강습일	참가비	대 상		
새벽요가	A반	06:00~06:50	월·수·금	초 2일반		
	B반				성 인 38,500	
	C반					노 인 38,500
	D반					
헬빙요가	A반	10:00~10:50	월·수·금	성 인 38,500		
	B반				화·목	
	C반					월·수·금
	D반					
생활요가	A반	14:00~14:50	월·수·금	초 3일반		
	B반				화·목	
	C반					월·수·금
	D반					
아로마요가	A반	16:00~16:50	월·수·금	성 인 50,600		
	B반				화·목	
	C반					월·수·금
	D반					
직장인요가	A반	19:00~19:50	월·수·금	초 3일반		
	B반				화·목	
	C반					월·수·금
	D반					

● 헬스(패키지) 프로그램

(부가세포함)

프로그램	시 간	강습일	참가비	대 상
헬스교실	06:00~21:50	월~토 (토18:50)	성 인 47,300 초소년 38,500 노 인 38,500	초소년 이상

● 생활체육 프로그램

(부가세포함)

프로그램	시 간	강습일	참가비	대 상		
배드민턴	A반	06:00~06:50	월 ~ 목 (강습)	성 인 45,100 초소년 45,100 노 인 38,500		
	B반					
	C반					
	D반					
	E반					
	F반					
어린이 배드민턴	A반	16:00~16:50	월·수·금	38,500		
	B반					
탁구교실	A반	18:00~18:50	월~목(강습)	성 인 41,800		
	B반				노 인 38,500	
	C반					
농구교실	A반	16:00~16:50	화·목	33,000		
	B반					
실내축구	A반	15:00~15:50	화·목	33,000		
	B반					
음악놀이	A반	17:00~17:50	화·목	38,500		
	B반					
필라테스	A반	20:00~20:50	월·수·금 화·목·토	성 인 50,600		
	B반				노 인 38,500	
	C반					초소년 45,100
	D반					
	E반					
	F반					
G반						
H반						

● 체조댄스 프로그램

(부가세포함)

프로그램	시 간	강습일	참가비	대 상
에어로빅	A반	10:00~10:50	월·수·금	성인 50,600
	B반			
발리댄스	A반	16:00~16:50	월·수·금	성인 50,600
	B반			
어린이 발리댄스	A반	17:00~17:50	월·수·금	38,500
	B반			
발레교실	A반	16:00~16:50	화·목	33,000
	B반			
스포츠탠스	초급	19:00~19:50	화·목	성인 39,600
	중급			노인 38,500
	초고급	20:00~21:20	화·목	성인 44,000
	노인 38,500			

● 문화 프로그램

(교구비 및 교재비 별도)

프로그램	시 간	강습일	참가비	대 상
* 동화구연	15:10~16:00	월	75,000	5 ~ 7세
비독교실	A반	14:00~14:50	토	30,000
	B반			
속독논술	A반	14:00~14:50	토	25,000
	B반			
블록놀이 (토이다)	A반	15:10~16:00	수	30,000
	B반			
중어접기교실	A반	15:10~16:00	금	25,000
	B반			
일글리시케이크(신설프로그램)	15:10~16:00	화·목	50,000	5 ~ 7세

(*) 표시된 프로그램은 3개월 회비로 접수 받습니다.

● 신설 프로그램

프로그램	시간	강습일	참가비	대상
필라테스 1반	15:00~15:50	월·수·금	성인 50,600 노인 38,500 초소년 45,100	초소년 이상
누리키 교실	A반	15:10~16:00	월	30,000
	B반			
신나는 과학 교실	A반	15:10~16:00	금	30,000
	B반			

● 꿈나무체능단 (연간 교육프로그램)

- 대 상 5세, 6세, 7세
- 교육기간 월 ~ 금, 3월 ~ 익년 2월 (오전 10시 ~ 오후 3시)
- 월교육비 280,000원(교재비 및 식대비, 행사비 등 별도)
- 교육내용
 - 유아교육: 건강, 사회, 표현, 언어, 탐구생활의 5개 영역 교육 등
 - 체능교육: 수영, 신체적성운동, 기구운동, 그룹놀이 등
 - 특별교육: 영어, 과학, 동화구연, 발레, 테렌도, 유아국악, 바둑 등
 - 체력교육: 아이리싱, 캠프활동, 견학활동 등

복구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TEL 051. 365. 7070

www.bukgusports.com

● 수영 프로그램

성 인 | 주 5회(66,000) / 주 3회(44,000) / 주 2회(33,000)
 청소년 | 주 5회(58,000) / 주 3회(38,000) / 주 2회(25,000)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명	정원
굿모닝	06:00~06:50	초급	
		중급	
		고급	
		연수	
	07:00~07:50	초급	주 2회 주 3회 주 5회
		중/고급	
		연수	
		초/중급	
	08:00~08:50	초/중급	주 2회 주 3회 주 5회
		연수	
		초급	
		중급	
	09:00~09:50	초급	초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10:00~10:50	초급	중급(25명)
		중급	
		고급	
		연수	
	11:00~11:50	초급	고급(25명)
		중/고급	
		연수	
		초급	
	15:00~15:50	성인종합	연수(40명)
		성인종합	
		초/중급	
		연수	
	17:00~17:50	성인종합	
		성인종합	
		초/중급	
		연수	
	19:00~19:50	고급	
		연수	
		초급	
		중급	
	20:00~20:50	고급	
		연수	
		초급	
		중급	
	21:00~21:50	고급	
		연수	
		초급	
		중급	

※ 강습인원 15명 이하 시 폐강 또는 합반될 수 있습니다.
 센터의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영 프로그램 강습시간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 아쿠아로빅 주 2회 | 44,000 주 3회 | 55,000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명	정원
아쿠아로빅	12:00~12:50	화/목(주2회)	50명
	14:00~14:50	월/수/금(주3회) 화/목(주2회)	80명

● 방과후 수영 어린이 | 44,000 유 아 | 30,000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명	정원
어린이 수영교실	15:00~15:50	어린이종합반	초급(25명)
		어린이종합반	
		유아(월, 수, 금)	
		초급(1)	
	16:00~16:50	초급(2)	중급(30명)
		고급	
		초급	
		고급	
	17:00~17:50	초급	고급(30명)
		중급	
		초급	
		고급	
	18:00~18:50	초급	종합(30명)
		중급	
		고급	
		초급	

● 주말수영 어린이 | 35,000 청소년 | 40,000 성 인 | 45,000

프로그램	강습 시간	반명	정원
주말수영	토 11:00~11:50	주 2회	25명
	일 11:00~11:50		
핀수영	토, 일 09:00~09:50		

● (월)자유수영 어린이 | 30,000 청소년 | 40,000 성 인 | 48,000

프로그램	운영 시간	참가일
(월) 자유수영	1부 08:00 ~ 08:50	월~금 (주 5회)
	2부 12:00 ~ 13:50	
	3부 18:00 ~ 18:50	

● 일일 자유수영

프로그램	운영 시간	참가일	
자유수영	평일 08:00~08:50 12:00~13:50 18:00~18:50	월~금	
			주말 1부 09:00~11:50 2부 13:00~17:50
	12:00~13:00 수질정화시간(입장불가)		
이용요금	회원		비회원
	성 인 2,300원	성 인	3,300원
	청소년 1,500원	청소년	2,500원
	어린이 1,200원	어린이	2,200원

● 요가/파워로빅/다이어트

프로그램	강습 시간	정원	(월)회비
요가 (월~금)	07:00~07:50	25명	성인 55,000원
	19:00~19:50		청소년 50,000원
파워로빅 (월~금)	10:00~10:50	25명	성인 40,000원
	11:00~11:50		청소년 55,000원
웰빙 스포츠댄스	16:00~16:50 (50분/화, 목)	25명	성인 55,000원
	20:00~20:50		청소년 50,000원
댄스에어로빅 (월~금)	21:00~21:50	25명	50,000원
타바타 (월, 수, 금)	06:00~06:50	25명	50,000원
			40,000원
타바타 (화, 목)	06:00~06:50	25명	40,000원

● 스트레칭

프로그램	강습 시간	강습일	정원	(월)회비
S라인 프로젝트	12:00~12:50	월, 화, 목	30	30,000원
바디 체인지	15:00~15:50	월, 화, 목	30	30,000원

● 배드민턴

프로그램	강습 시간	정원	(월)회비
배드민턴 (월~금)	06:30~07:50	40명	50,000원
	19:00~20:20		
	20:30~21:50		

● 헬스

프로그램	운영 시간	(월)회비
건강클리닉	평일 06:00 ~ 21:50	성 인 44,000원
	주말 / 공휴일 09:00 ~ 17:50	청소년 39,000원

● 감면할인 대상자

프로그램	대상자(중복할인 불가)
50%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 기초수급자
30%	만65세 이상인 자
15%	12개월 등록시
10%	6개월 등록시
5%	3개월 등록시

※ 감면적용 대상자는 접수 시 관련서류 첨부을 하셔야 할인적용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이용안내

센터운영시간	평일	06:00~22:00
	주말 (공휴일)	09:00~18:00
센터 접수시간	기존회원	매월 21일 ~ 23일
	신규회원	매월 24일 ~ 마감까지
센터 정기휴관	매월 첫째 주 / 셋째 주 수요일	
문의전화	TEL	051-365-7070
	FAX	051-365-2078



사람과기술,
문화로 융성하는
부산

시민이 더 행복해집니다.
부산이 더 건강해집니다.



행복한 운동을 위한 환경설정! 당신이 먼저 켜 주세요

당신의 관심과 적극적인 인식전환이 선수의 폭력과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다른 효과!!

보석처럼 빛나는 골든블루!

고객님들의 폭넓은 사랑으로 2014년 가장 빛나는 위스키로 우뚝 선 골든블루
국내 Top3 브랜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할 '뉴러서리 위스키'로 거듭나겠습니다

| 2014년 전년 대비 성장률 58% / 2014 위스키 히트상품 석권 / 2014년 마케팅 대상 수상 / 2015년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골든블루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2015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GOLDEN BLUE

경고: 지나친 음주는 건강이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해피콜과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해피콜 IH 진공냄비 "이제 스팀으로 조리하고 진공으로 보관하세요"

해피콜 IH 진공냄비는 아르마이드 특수 공법이 적용된 고순도 알루미늄 통주물 본체에 첨단 IH기능까지 접목시켰으며, 스테인레스 스틸 뚜껑과 손잡이에는 트리플 스팀제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오래도록 우려내는 사골은 물론이고 일반 요리에서부터 아이들 이유식까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합니다. 일반 압력냄비와 달리 조리 중 자유롭게 뚜껑을 여닫을 수 있으며, 조리 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놓아두면 식으면서 자동으로 진공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영국 텐저린사가 디자인한 절제된 곡선과 직선, 스테인레스 스틸과 고순도 세라믹필의 조화는 주방 어디에서도 은은한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해피콜 IH 진공냄비는 이렇듯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과 디자인, 첨단 설비를 통해서만 구현 가능한 핵심 기술력과 품질력으로 탄생했습니다. 이제 스팀으로 맛있게 조리하고 진공으로 편리하게 보관하십시오.

BNK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만나
더 큰 금융 BNK로
더 힘차게 도약합니다

BS금융그룹이 BNK금융그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 5대 금융그룹으로 우뚝 선 BNK

앞으로 더 세계적인 금융이 되어

고객 한분 한분의 더 큰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Beyond No.1 in Korea
BNK 부산은행

Bⁿ 대선주조

360만 부산시민이 체육을 즐기는 날까지,
대선주조와 부산광역시체육회가 함께합니다.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wards 2016

2016 사회공헌대상

순하니까
순하다!
순시 16.9



벌꿀
마테차
함유



순한
시원

천연암반수 100%
더 순하게 시원하게!

대선주조 모델 박기량

경고 : 사내음주는 간병이나 기증, 임의의 대우, 임의의 직인 등 사내 및 밖을 유입니다.